

2017년

충남 마을만들기 우수도서 독서대회

저자초청 강연회 및 시상식

“제10회 충남 마을만들기 대화마당(종합)”

일시

2017. 12. 19(화), 14~17시

장소

충남개발공사 10층 대회의실
-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 58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목 차 CONTENTS

제10회 마을만들기 대화마당

2017 충남 마을만들기 우수도서 독서대회 저자초청 강연회 및 시상식

개 요	01
-----	----

추진 목적 및 프로그램 일정표

충남 마을만들기

충남 마을만들기 3단계 5개년 기본계획 소개	03
--------------------------	----

구자인 센터장(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저자초청 강연회

발표자료 / 초청 강연 “기적 아닌 날은 없다”	41
----------------------------	----

사례자료 / 공동체는 탁월한 개인보다 지혜롭다	77
---------------------------	----

강위원 저자(여민동락공동체)

제10회 충남 마을만들기 대화마당(종합)

제10회 대화마당은 올해 대화마당을 마무리 짓는 결산의 자리이며, 충남 마을만들기 우수도서 활용 독서대회(저자 초청 강연회)와 연계하여 추진합니다.

우수도서 활용 독서대회 전에 대화마당 연간 활동 동영상 시청 후 희망마을 5개년 기본계획 설문조사 결과 소개 및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올해 대화마당을 마무리하는 자리이기도 하니 많이 참석하시어, 서로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학습과 토론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일시 : 2017년 12월 19일(화) 오후 2시 ~ 5시

○ 장소 :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10층 대회의실(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58 충남개발공사)

○ 저자: 강위원



- 투계더광산나눔문화재단 상임이사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 前 여민동락공동체 대표
- 저서 ‘기적 아닌 날은 없다’

○ 일정표

시 간		내 용	비고
14:00~14:10	10'	• 개회식 • 환영사 : 강현수 충남연구원장 • 동영상 시청 : 2017 대화마당의 기록	
14:10~14:25	15'	• 충남 마을만들기 3단계 5개년 기본계획 소개	
14:25~14:30	5'	• 강위원 저자 소개	
14:30~15:30	60'	• 초청 강연 “기적 아닌 날은 없다”	
15:30~15:50	20'	• 휴식 및 저자 사인회	
15:50~16:20	30'	• 지정 질문과 답변	
16:20~16:50	30'	• 수상자 소개 및 상패(상장), 상품권 전달 • 수상자 소감 발표 : 최우수, 우수 4명 • 대화마당 우수 참석자 시상(4명)	각 2~3분
16:50~17:00	10'	• 기념촬영	

※ [참고] 월별 운영계획

회차	일시	주요 내용	비고
1차	2.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 :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 쟁점 : 마을만들기와 사회적 경제의 만남 	워크숍
2차	3.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성군 : 홍성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 • 쟁점 :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홍성군지원센터 개소식
3차	4.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산군 : 금산군청+지역활성화센터 • 쟁점 : 농촌 마을과 중심지활성화 연계 	4.20~21 3농혁신대학 연계 진행
4차	5.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안시 : 천안시공동체지원센터 • 쟁점 : 도농통합시의 마을간 협력방향 	
5차	6.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령시 : 보령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 쟁점 : 마을만들기 협업과 지역네트워크 	11월 충남대회 협의
6차	7.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천군 : 서천군농촌마을지원센터 • 쟁점 : 농촌 마을만들기협의회 구성과 운영 	
7차	8.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군 :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 • 쟁점 : 농촌 마을과 귀농귀촌 	
8차	9.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산시 : 아산시공동체지원센터 • 쟁점 : 중간지원조직의 행정 직영과 민간위탁 	
9차	10.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주시 :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 쟁점 : 농촌체험휴양마을과 중간지원조직 	
종합	12.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토론 :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 우수도서 활용 독서대회(저자 초청 강연회)와 연계 	

* 향후 상황에 따라 개최 시군 및 시기, 주제(쟁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충남마을만들기 |

충남 마을만들기 3단계 5개년 기본계획 소개

- 구자인 센터장(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충남 마을만들기 3단계 5개년 기본계획(안)

2017. 12

목 차 Contents

I. 계획의 개요	... 3
II. 충남 희망마을 만들기의 성과와 반성	... 6
III. 3단계 4개년 기본계획(안) 주요 내용	... 22
VI. 향후 일정	... 69

충남 마을만들기 3단계 5개년 기본계획(안)

I. 계획의 개요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I. 계획 개요 II. 성과,반성 III. 주요 내용 IV. 향후 일정

● 계획 수립의 배경

희망마을
조례
제6조

충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6조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② 희망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전과 목표
 2. 추진방향과 추진체계
 3.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협력 체계
 4. 사업내용
 5. 관련 프로그램의 통합적 활용방안
 6. 그 밖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3.09.25.>
-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09.25.>

● 목적과 범위

“광역은
광역답게”

계획 목표 : 충청도 마을만들기 정책의 종합적인 체계화

- 1) 마을 내 자치시스템과 2) 마을 밖 지원 시스템의 종합

계획 목적 : 충청도 마을만들기 정책의 3단계 중기 기본계획 수립

- 1) 1단계, 2단계 정책의 성과와 과제 분석
- 2) 3단계 정책의 비전과 목표, 전략, 추진체계, 신규 사업 등 제안
- 3) 특히, 민선7기 출범에 맞추어 신규 정책과 추진체계, 사업 등을 발굴하고 제안
- 4) 지역혁신추진단 협의체계와 병행, 3농혁신 3단계 기본계획과의 정합성 유지

2. 계획의 성격과 수립방향

● 계획의 성격

중기계획

■ 중기계획, 전략계획, 협치계획

- 1) 대내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기 계획
- 2) 충남 마을만들기 정책의 방향과 체계를 제시하는 전략 계획
- 3) 충남 마을만들기 정책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각 주체의 역할을 명시한 협치계획

● 시간적 범위

2018~2022년

■ 3단계 : 2018년 ~ 2022년

- * 2018년에 별도 연구를 통해 예산계획까지 반영된 2019년 실행계획 수립
- * 1단계 : 2011~2014 - 충남연구원 기본과제 형식으로 작성
- * 2단계 : 2015~2017 - 민선6기 전략계획 성격으로 외부 연구용역으로 작성

● 계획수립방향

공동학습 과 토론

■ 예산 :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출연금 예산으로 추진

- 1) 관련 사업 성과물의 최대한 수집과 정리, 반영 2) 연구보조원 1인 채용

■ 연구진 : 지원센터 연구원 + 외부 자문위원

- 1) 지원센터 연구원 : 구자인(농촌경제학), 정석호(농촌지리학), 장윤수(연구원)
- 2) 외부 자문위원 : 지역혁신추진단(박경) + 박영범, 임경수, 서정민 박사 등

■ 연구방법 : 전문가 자문회의, 설문조사 등

- 1) 전문가 자문회의(3회 연속), 2) 설문조사(277부 회수), 3) 기타

5

충남 마을만들기 3단계 5개년 기본계획(안)

충남 마을만들기 3단계 5개년 기본계획(안)

Ⅱ. 충남 희망마을 만들기의 성과와 반성

1. 충남 희망마을 만들기의 추진 경과(종합)

I. 계획 개요 II. 성과, 반성 III. 주요 내용 IV. 향후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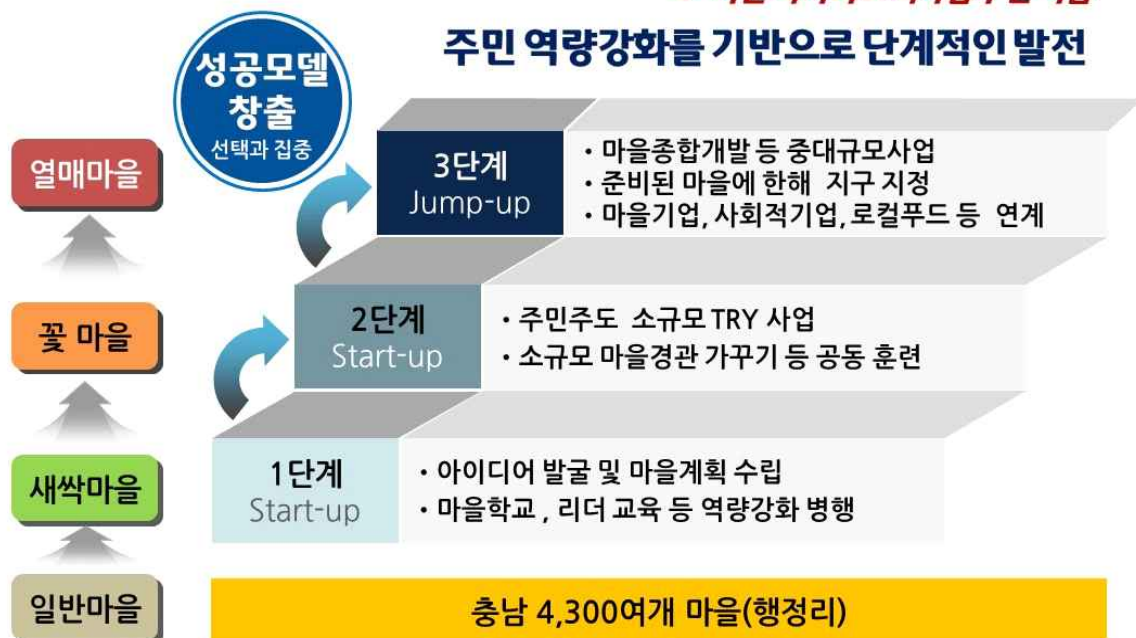
7

2. 1단계(민선5기, 2012~14년) 추진전략과 중점 과제

가. 마을 사업 추진의 역량단계별 체계화

→ 농식품부 정책으로 반영
→ 시군 독자의 소액사업 추진 미흡

주민 역량강화를 기반으로 단계적인 발전



8

[참고] 충남 희망 농어촌 마을만들기의 1단계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충청남도 희망 농어촌 마을만들기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스스로 이루어 나가는 희망 농어촌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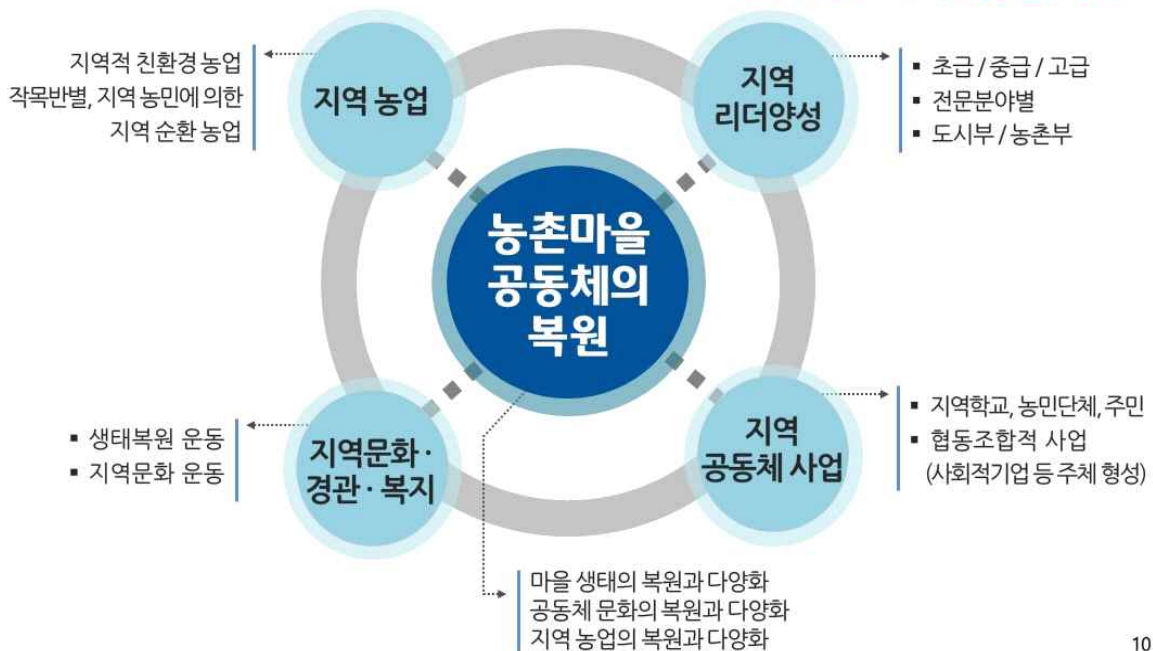


구분	정책화 전략	마을추진전략
1단계	① 추진준비단계 - 마을만들기 행정선언 - 목표 및 미래상 설정 - 지역순회교육(홍보) -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 - 필요성 공유 - 마을진단 프로그램 도입	① 주민 동기부여 및 유도단계 - 공공행정중심 & 소극적 주민참여 - 마을순회교육(홍보) - 학습모임(연구회) 구성 및 활동
2단계	② 기반조성단계 - 확산유도 및 행정기반 조정 - 센터개설 및 지원팀 운영 - 지원조례 제정 - 관련 주체간 협력방식 개발 - 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지원예산 마련 - 모델사업 추진 - 사업 및 활동지원 - 공무원 교육 및 전문가 육성 - 마을역량법 교육프로그램 개발	② 주민기획단계 - 민간단체전문가의 적극적 참여 & 점진적 주민참여 - 체계적인 주민조직 구성 및 활동 - 마을리더 및 주민교육 - 마을발전계획 수립 - 마을만들기 구상 제안 - 소규모 자체사업 추진 - 전문가컨설팅 운영
3단계	③ 활성화단계 - 지원행정체계 구축 - 전담부서 설치 - 각종 지원기금 마련 - 전문가 파견 및 담당제 도입 - 컨설팅·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③ 주민주도단계 - 민간단체전문가의 지속적 참여 &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 마을개발 체계화(규약, 회계 등) - 네트워크모델 확산 - 주민참여 프로세스 강화 - 커뮤니티 형성 프로그램 강화 - 소중대규모 국비사업 연계 추진

자료 : 충남발전연구원, 2011a, 『충청남도 희망 농어촌마을 만들기의 추진모형 및 실천전략』 (전략연구)

9

나. 마을 사업의 융·복합화와 지원체계 통합 → 업무협조체계 구축 → 여전히 총괄조정 기능(권한) 미약



10

다. 주요 사업 내용과 성과목표

→ 마을에 대한 자극 제공
→ 여전히 제도적 지원 시스템 미흡

마을발전계획 수립
및 리더교육
(희망마을만들기사업)

희망마을 만들기
선행사업 시범 추진
(소규모 역량강화사업)

관련 실과 연계,
희망마을 융복합 T/F팀
구성 및 지원조례 제정

2012~14년

총 658개 마을

- 연간 지원마을 수 : 약 220개
- 지원금액 : 마을당 10백만원

2012~14년

총 80개 마을

- 지원금액 : 마을당 3천만원



충남시군 희망마을 발전계획 경진대회



희망마을 만들기 선행사업
(출처 : 희농이)



마을만들기 협력부서간 융복합사업
추진 T/F팀 연찬회(2013.3.14)

3. 2단계(민선6기, 2015~현재) 추진전략과 중점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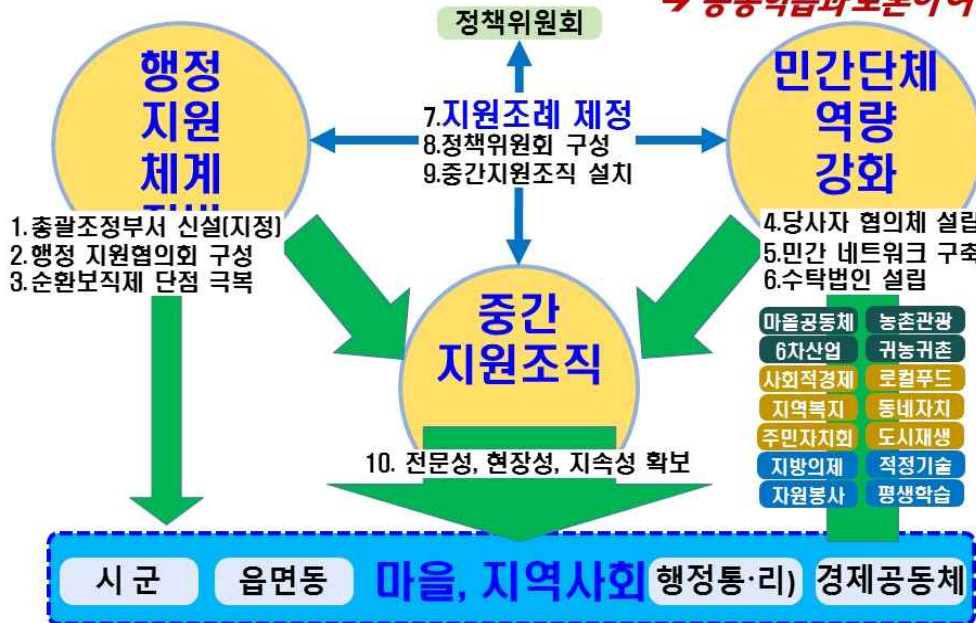
가. 민선6기 희망마을의 추진 체계

→ 마을정책 체계화
→ 민·관의 중심 역할은 여전히 미흡



나. '마을만들기의 지원 시스템' 구축 10대 핵심과제(개념도)

→ **민관협치의 제도적 시스템**
→ **공동학습과 토론이 여전히 부족**



13

다. 민선5기와의 차이점

✓ 중점사업의 변화

→ **민관협치의 제도적 시스템**
→ **공동학습과 토론이 여전히 부족**

✓ 기존 마을계획 수립 및 교육은
농식품부 현장포럼 사업으로 대체

마을계획
수립

희망마을
선행사업

마을만들기
지원 시스템
구축

(1) 광역도 및 15개 시군 중간지원조직 설립

- 2017.12 현재, 11개 시군 추진중, 9개 시군 개소
- 2년간 160백만원 지원 (도비 50%, 시·군비 50%)

(2) 행정 지원체계 정비

- 총괄부서 지정(6개), 행정지원협의회 운영(3개), 순환보직제 단점 극복(임기제 4명)
- 조례 제정(6개 시군)

(3) 마을위원장협의회 설립,

민간 네트워크 구축 및 법인 설립

충남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 현황(2017.12 현재)

구분	합계	행정직영	민간위탁	민간보조
합계	11	5	4	2
광역	2		1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1 (충남활성화지원센터)
시군	9	5 (아산,논산,서천, 청양,태안)	3 (천안,홍성,보령)	1 (예산)

✓ 희망마을 선행사업 확대 개편
:매년 70개소(개소당 3천만원)

14

4. 1,2단계의 추진 성과

가. 충남도 모델의 선도적 성과가 전국 시책으로 채택



[표] 충남 농촌 마을만들기 관련 주요 행정 사업 추진 현황(종합)

구분	2011 이전	합계 (2012-2017)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비고
마을학교(희망마을1단계)		643	257	246	140				충남도
농촌 현장포럼		293		48	56	63	63	63	
희망마을 선행사업		290		37	43	71	69	70	충남도
창조적_체험소득		20		4	4	2	6	4	
창조적_경관		55			8	15	12	20	
창조적_문화		35		8	3	5	8	11	
창조적_마을종합		7				3	2	2	
권역사업	41	26	9	6	8	3			
중심지활성화	19	51	8	4	9	8	11	11	
산촌생태마을	32	1	1						
합계	92	1,421	275	353	271	170	171	181	
체험휴양마을(지정연도)	71	57	15	13	10	15	3	1	

주. 1) 모든 사업은 사업 착수연도를 기준으로 함. 2) 희망마을 선행사업은 2015년부터 본격 시작되었지만 그 이전에 시상금 지급 마을을 포함함. 3) 중심지활성화사업은 소도읍 육성, 읍면소재지 정비 사업을 포함함. 4) 산촌생태마을 사업은 예산도 크고 건수도 많아 녹색농촌/전통테마 등의 마을 사업과 달리 별도로 포함함. 5) 체험휴양마을은 2017.7 기준으로 최초 지정된 연도에 해당함.

나. 마을만들기 제도적 기반 구축, 주민 주도 기반 조성



마을 역량단계별 사업 추진 체계 정비
1단계(일반마을) → 2단계(새싹마을) → 3단계(꽃마을) → 4단계(열매마을)



전담부서 지정 및 지원조례 제정,
각종 사업 지원의 융·복합화 장려



핵심리더 발굴 육성, 선행사업으로 경험 축적 → 실행능력 강화
* 2012~16년, 마을리더 육성: 1,568명 * 희망마을 선행사업: 222개 마을 추진



시·군별 중간지원조직 확대 구축
총 9개 시군 센터 개소, 운영중(4개 시군 설립 준비중)



마을
만들기
제도적
기반
구축

17



18

다.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전국대회, 3년 연속 최우수 달성



5. 1,2단계 추진의 반성과 과제

가. 마을 활성화 관련

마을 활성화

광역의 역할은??
시군의 역할은??
마을 스스로의 역할은??

전략 목표 설정에 대한 공감대 부족

- **스타 마을 육성인가?** 일반 마을의 단계적 역량 강화인가?
- 연간 **양적 목표 설정**이 바람직한가? 무엇으로 평가할 것인가?
- 사업 자금 지원이 아니라 **왜 마을계획과 교육, 지원 시스템인가?**

여전히 부족한 사전 학습과 준비단계

- 중앙, 광역에서 마을 단위 **소액사업까지** 지원하는 문제 : 현장포럼, 선행사업
- **시군의 소액 프로그램 사업**을 통한 예비마을 양성이 여전히 부족
- 사전학습과 소액사업 경험축적을 지원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 역량** 문제

마을 활성화 사업의 단계적 체계적 지원 미흡

- **사후관리가 여전히 미흡**하고, 농식품부 사업으로 **체계적인 연결** 부족
- 희망마을 선행사업의 **경제공동체 영역 신청이 없고**, 현장밀착형 지원 부족
- 중대규모 하드웨어 사업 완료 지구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등

농촌 마을 현실의 구조적 진단과 근본적 대응 미흡

- 마을 리더의 **피로감**이 심각하고 **초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상황
- 인구 감소와 저성장이 구조화된 상태에서 **농촌마을정책의 체계적인 정립이 미흡**
- 민간의 주민주도성이 약화된 **구조적 현실에 대한 근본적 대응** 필요

20

나. 마을만들기 지원 시스템 구축 관련

행정 주도에서 민관협치 주도로의 전환 노력은 적절

- 타 지역에 비해 **빠른 속도로 마을만들기 지원 시스템 구축**
- 여전히 **지자체 이해와 민간역량 부족**으로 중간지원조직의 조기 정착률이 과제

민간 네트워크 구축과 법인 설립의 어려움

- 마을만들기 위원장(당사자) 협의회 설립이 더디지만 서서히 진행
- 민간 네트워크 법인 설립의 어려움 : 칸막이를 극복하고 강력한 지원 필요
- 행정의 정책적인 인큐베이팅 관점 필요 : 민간위탁의 전제 조건에 해당

농촌정책 전체를 보면서 구조적 대응 필요

-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부족한 역량 집중** : 마을만들기 지원 시스템 조기 정착
- **관련 정책 영역간 융복합 강화** : 마을공동체, 농촌관광, 귀농귀촌, 6차산업, 사회적경제, 동네자치, 평생학습 등 + 읍면 정책과의 강력한 결합
- **행정 지원체계 정비** : 공무원 순환보직제 단점 극복, 농촌정책 총괄 기능 강화



행정의 역할은??
지원센터의 역할은??

21

충남 마을만들기 3단계 5개년 기본계획(안)

Ⅲ. 3단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1. 현단계 상황 진단과 중장기 방향

※ 현재 계속 논의중인 내용으로 많은 조연 기대

● 대내외 여건변화와 충남 현단계 상황분석

대내외
여건 변화

- 인구감소, 고령화, 다문화, 베이비부머 은퇴 및 귀농귀촌
- 저성장, 양극화,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 문재인 신정부 출범, 지방자치분권, 혁신읍면동 등 정책 환경 변화

충남
현단계
상황분석 1

상황분석 1 : 마을활성화 내부 측면

✓ 마을 주민과 추진주체의 역량은 성장하고 있는가?

- 개인 리더의 성장 또는 마을 단위로는 한계
- 면단위, 지역단위와 연계하여 접근 필요 : **정책 영역 확대**

✓ 희망마을의 성과모델이 도출되고 확산되고 있는가?

- 저변은 계속 확대되어 왔지만, 여전히 제한적 모델에 국한
- 농업·농촌의 구조적 변화에 근본적 대응 필요 : **정책 융복합 강화**

23

충남
현단계
상황분석 2

상황분석 2 : 마을만들기 지원 시스템 측면

✓ 행정 지원체계의 정비는 진전되고 있는가?

- 일부 지자체에 한정된 상황 : **광역의 정책적 유도 강화**

✓ 행정의 '칸막이'는 극복되고 있는가?

- 광역은 계속 시도중, 시군은 느리게 진행중 : 3농혁신 차원에서 **업무조정과 조직 개편**

✓ 민간협력네트워크 구축과 법인 설립은 진전되고 있는가?

- 상호 학습단계, 느리게 진전 : **광역의 명확한 '신호' 필요**

✓ 현장밀착형 중간지원조직은 잘 설치·운영되고 있는가?

- 7개 시군 운영중, 이제 시작단계 : **연착륙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

✓ 농촌 마을 만들기과 주변 영역의 유기적 연대는 잘되고 있는가?

- 농촌관광, 귀농귀촌, 6차산업 + 사회적경제, 평생학습 + 주민자치위원회 + 도시형 마을만들기(동네자치, 도시재생) 등
- 협업과 융복합은 제한적으로 실시 중. 특히 **농촌정책 영역의 융복합이 선결 과제**

24

2. 전문가자문회의의 의견 및 설문조사 결과

가. 전문가자문회의의 결과

자문회의 개요

- 목적 및 방향
 -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설문조사, 기초 현황 분석 등과 병행하여 전문가 의견 수렴 추진
 - 발제는 최소화하고 중장기 방향과 관련하여 관련 외부 전문가들의 심층적인 의견을 집중 청취
 - 3회 연속으로 개최하여 논의의 집중도를 유지하고, 논의 결과를 정리하여 기본계획에 반영
 - 지역혁신추진단 위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3농혁신 3단계 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추진
- 일 시 : 2017. 8.1(화), 8.9(수), 8.23(수) 14~17시, **3회 연속 개최**
- 장 소 :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회의실(공간U)
- 참석대상 : 약 20명 이내 (※ **회의주재 : 박경 지역혁신추진단장**)
 - 외부 전문가 : **박영범 대표**(지역농업네트워크 협동조합) - 1회차 발제
임경수 센터장(전주원도심재생현장지원센터) - 2회차 발제
서정민 센터장(지역재단 지역순환경제센터) - 3회차 발제
 - 3농혁신위원회 : **김 호 교수**(충남 3농혁신위원회 위원장)
이관률 부장(충남연구원 농업농촌연구부) - 3농혁신 3단계 연구용역 책임
조영재 박사(충남연구원 농업농촌연구부) - 서면 자문
 - 지역혁신추진단 : 위원 중 희망자 약 10명(전영미, 박두호, 권영진, 김정근, 안현경 등)
 - 행정(공무원) : 농정국장, 농촌마을지원과장, 마을가꾸기팀장 등
- 진행방식(기본) : 기본 발제 내용 사전 공유 + 지정 토론
 - 기본 발제(30분) : 구자인 센터장 - 쟁점별 제안(보고서 초안 성격)
 - 외부 발제(30분) : 외부 전문가 - 충남에 대한 외부 평가/제안 성격
 - 지정 토론(60분) : 외부 전문가 등 -
 - 자유 토론(40분) : 참가자들의 자유 의견 제안 및 토론
 - 종합 정리(20분) : 좌장이 쟁점 정리 및 제안

25

자문회의 결과 (1차)

1차 자문회의

○ 일 시 : 2017. 8.1(화) 14:00 ~ 17:00

○ 주요 쟁점 : 3단계의 **비전과 목표, 정책**

[주요 쟁점]

- 희망마을 만들기 정책 범위(영역)를 어디까지로 잡을 것인가?
- 1단계의 성과와 과제는 무엇인가? 핵심적인 쟁점은 무엇인가?
- 대내외적으로 변화된 여건은 무엇인가? 충남의 SWOT 분석을 한다면...
- 2단계의 비전과 목표는 무엇인가? 누가, 어떻게 정할 것인가?
- 향후 추진방향으로 핵심적인 전략은 무엇인가?

[외부 발제] 박영범 이사장(사회적협동조합 지역농업네트워크)

- 패러다임의 전환 시대 : 지속가능한 사회경제를 구축하는 '균형발전 시준2' 준비, 지역사회를 에너지·물·식량·주택·의료·교육 등 지역순환생태경제망 구축으로 전환
- 새로운 투트랙 정책 패키지로 접근 : 광역은 화폐경제(GDP) 중심의 산업정책의 균형적 육성, 기초는 **삶의 질을 중심으로 생활경제클러스터 구축**(醫食住育 중심)
- 비전 : 방방곡곡 골고루 살기 좋은 대한민국
- 목표 : 지속가능한 생활경제(기초), 혁신하는 생산경제(광역)
- 농업농촌뉴딜 정책패키지 : 농촌정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기 → **농어촌을 도농상생의 국민의 집, 국민의 정원으로**, 농어업, 농어촌을 미래성장 동력으로
- 주요 정책추진 과제 : 1) 지역과 농어촌의 5060 뉴딜, 액티브 시니어 플랜, 2) 지역으로 사람과 자본 이동에 대응한 O2O 플랫폼 구축, 3) 농어촌 지역에 사회주택 100만호 공급, 4) 협동사회 경제 : 지역협동생태경제망 구축 - 지역 일자리, 5) 지역별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구축 : 지역의 신성장 동력, 6) 지역의 사회금융체계 : 내발적 발전 동력, 7) **통합적 농어촌 공간 재생 추진**

26

자문회의
결과
(1차)

[주요 토론]

- 김호 교수 : 정량적인 성과평가보다 **질적 평가 중요**, 행정리 '마을' 영역으로 축소되면 안됨. 마을 공동체의 문화적 측면과 거버넌스를 강조해야 행정의 융복합 필요성과 논리적으로 연결됨
- 박영범 이사장 : '돌아온다'는 표현은 인구 이동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저성장 시대에 구조적 현상임을 강조. 향후 농촌 계획에 있어서는 광범위한 인구 이동까지 포함하여 검토해야 함
- 서정민 센터장 : '충남형'의 특성과 내용을 잘 드러내고, **영역 간 융복합**을 위해 기초 지자체의 정책 수용 입장을 고려해야 함. 기초의 역할은 무엇인지 포함바람
- 박경 교수 : 마을만들기에서 '**지역만들기**'로 전환하여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방향도 적극 검토. 이번 기본계획 수립 시 기본 자세(stance)로서 '**적극적 전환**'에 도전하자.

[시사점, 합의사항]

- 1) 성과 평가 방법 : 정성적 특성을 반영한 정량 지표 개발
- 2) 비전과 목표 : '2단계' 표현 수정, '5개년'은 중기 성격 계획으로 정리
 - 비전과 목표, 전략 등 : '돌아오는' 표현 재검토, '복지' 의미 강화, 주거문제 포함 등
- 3) 정책의 영역 : 주민 관점, 비전과 사업의 일체성, 콤팩트 시티, '지역만들기', '대폭 개편'
 - 행정리에 국한하지 않고,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읍면까지 포괄하여 접근
 - 실제 집행 관련하여 핵심영역(총괄부서 영역)과 연계,협력 영역을 구분하여 접근
- 4) 종합 정리(박경 교수)
 - (1) 마을만들기는 농업·농촌 정책의 일환으로 각 영역간 긴밀한 연동 필요
 - (2) 광역 계획으로서 위상에 맞는 내용(program) 설계 : 시군은 실행계획(action plan)
 - (3) 좋은 계획을 위해 **적극적 전환, 대폭적인 개편까지 검토**

27

자문회의
결과
(2차)

2차 자문회의

○ 일 시 : 2017. 8.9(수) 14:00 ~ 17:00

○ 주요 쟁점 : 3단계의 **추진체계**

[주요 쟁점]

- 민관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행정-민간, 광역-기초 등
- 행정 지원체계는 적절한가? 업무 분장, 조직 체계, 공무원 전문성 등
- 민간 기관·단체·조직을 어떻게 심화, 확장할 것인가?
- 광역에서 시군, 읍면동, 마을의 역할분담은 어떻게 나눌 것인가?
- 마을 역량을 강화하고 민관협치를 제도화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외부 발제] 임경수 상임이사(생생협동조합)

- 마을과 마을만들기의 이해(정체성) : 현재 크고 작은 공간에서 마을만들기 방식으로 주민활동과 사업 추진 중, '**리**' 단위의 **마을진흥'사업'으로 좁게 해석하는 틀을 극복**해야 함
- 행정 시스템 측면에서 전북도가 충남도에 비해 발전된 형태인 것은 분명함. 하지만 반드시 유사한 조직의 통합이 효율적이라는 것은 아니며 토론과정과 실질적 연계성이 중요함
- 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시군 중간지원조직과 역할이 중복되고, 광역 센터와 통합 혹은 역할분담이 당면과제임.
- 광역은 시군을 지원할 수 있을 만큼 **전문성 확보**. 시군은 주민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담, 교육, 컨설팅 지원이 중요
- 읍면 지역개발사업이 마을만들기에서도 중요하고 주민자치위원회와의 관계 설정, 주민참여 예산제 연계 등을 검토해야 함. 농촌의 과소화 현실을 고려할 때 **읍면 단위 사업이 매우 중요함**
- 마을만들기 '사업'(경제공동체)의 주민은 "자발적이고 공공성을 갖춘 민주적 주민"이어야 하고, 생활공동체로서의 마을은 이장이 관리해야 할 것임. **생활공동체와 경제공동체는 분리하되 합리적 관계 설정이 중요함**

28

자문회의
결과
(2차)

[주요 토론]

- 박경 교수 : 마을은 community이고 작은 공동체라기보다 '지역'의 개념에 가까움. 일본도 마을을 의미하는 마치(町)는 한국의 읍면 규모 이상임. **마을의 개념 확대가 필요함**
- 홍순광 팀장(충남도청) : '리' 단위에서 할 수 없는 일이 많다는 것은 분명. '행정 단위를 뛰어넘는 개념'으로 확장 필요. **수요자인 주민 관점에서 조직개편 방향 제안은 꼭 필요함**
- 김성경 과장(충남도청) : 도의 추진체계 개편은 **방향성 제시만 필요**.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방안이 더욱 중요. 여러 관련 업무가 한 과에 집중된다면 우려되는 부분이 있음.
- 박경 교수 : 힘들어도 농촌마을지원과로 통합 필요. 3농정책 시스템에서도 **농촌정책을 원칙적으로 계속 주장**하는 것이 필요.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행정과 계속 협의하면서 방향 정립
- 임경수 상임이사 : 중간지원조직간의 MOU 체결이 필요. 중간지원조직이 없는 시군에 대한 대안도 필요. 도 차원에서 직접 채용하고 일정 기간 수탁기관 역할 수행 검토 필요

[시사점, 합의사항]

- 1) **사업의 범위, 마을의 개념** : 행정리 단위로는 한계가 많음. **법정리, 권역, 읍면까지 확대** 하여 접근. 단, 행정리를 핵심 단위로 두고 유연하게 확장. 소외되는 행정리가 없도록 배려
- 2) **도의 행정 지원체계 : 농촌정책의 총괄·기획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함. 반드시 통합일 필요는 없고, **연계와 협력도 중시**해야 함. 단, 행정 내부의 지속적 논의 필요. 3농혁신과 농촌정책의 큰 틀 속에서 개편방향을 제안하고 행정과 지속적으로 협의함
- 3) **광역 중간지원조직 : '광역은 전문화, 기초는 통합형'을 원칙으로 접근**. 농촌활성화지원센터와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통합 방향으로 지속 검토. 광역은 농식품부 및 도청의 제도적 개편 과정과 연계하여 지속 검토. 기초는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의 길을 열어주도록 지속 지원

29

자문회의
결과
(3차)

3차 자문회의

○ 일 시 : 2017. 8.23(수) 15:00 ~ 18:00 + 저녁식사

○ 주요 쟁점 : 3단계의 **중점 사업**

[주요 쟁점]

- 충남이 지향해야 할 희망마을의 고유 모델(목표)은 무엇인가?
- 농식품부 국비 사업을 보완하는 충남도의 고유 사업은 무엇인가?
- 농식품부 이외 타 부처 사업과 어떻게 연계, 협력할 것인가?
- 시군 지방비 매칭사업은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희망마을선행사업 등
- 공모사업의 방법론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농촌 마을만들기 사업예산을 어떻게 안정되게 확보할 것인가?

[외부 발제] 서정민 센터장(지역재단 지역순환경제센터)

-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기보다는 **기존 사업의 추진방식과 방법론에 대한 재검토와 근본적인 전환이 더 중요**
- 대상마을 선정 시에 주민 주도로 추진할 수 있는 마을과 외부의 지원으로 개선이 필요한 마을, 일정한 학습을 통해 발전가능성이 있는 마을 등으로 구분하고 이것을 **시군 지원센터에서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함
- 기존 역량강화 방법론에 대한 반성** : 한정된 기간에 사업계획 도출을 목표로 하는 한계. 일방적 동원 방식의 한계. 충분한 예비단계를 거쳐 주민들의 자존감 회복에 우선 목표
- 하드웨어 사업 : 안전마을, 안심마을, 쾌적한 마을, 즐거운 마을, 풍요로운 마을 등
- 소프트웨어 사업 : 마을향토문화연구회(가칭), 찾아가는 인문학강좌, 老-로케어, 공동 농작업 등
- 희망마을 만들기는 **중간지원조직과 활동가의 역할이 성패 좌우** : EU의 LEADER 프로그램과 **지역 애니메이터(Rural Animator)** 제도에서 배울 점

30

자문회의
결과
(3차)

3차 자문회의

- 일 시 : 2017. 8.23(수) 15:00 ~ 18:00 + 저녁식사
- 주요 쟁점 : 3단계의 **중점 사업**

[주요 토론]

- 박상우 상임이사 : 농촌마을지원과에서 **핵심사업**으로 가져가야 할 사업과 **신규사업**, 특히 협업을 통해 **연계 가능한 사업** 정리 필요하며, 꼭 필요한 것은 장기과제로 가져가자는 내용에 동의. 경관/정주/생산의 측면에서 보면 현재는 '기반 구축'에 멈춰 있는 상태로 **단계별 혁신**이 필요함
- 이관률 부장(충남연구원) : **사후 모니터링** 강조, **사업 간 연계도** 및 단계별 순서도(가이드라인)를 만들고, 유사한 사업은 과감하게 합치는 것도 필요. 새로운 사업보다는 **기존사업 정비** 필요
- 안현경 전문위원(홍성군) : **역량단계 유연성** 필요. 다양한 사업들이 있지만, 연계하기 어려운 상황. 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위원회**를 조직하되, 시군 역량을 어느정도 반영할 수 있도록 제시
- 김성겸 과장(충남도청) : 이장 중심 체계의 한계로 정보 전달의 한계 있음. 중간지원조직이 그 기능을 대체하여 누구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열어놔야 함. 시군에서 **주민주도의 다양한 사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열어둘 필요 있음. **농촌마을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구체화하고, 연계/협력 할 수 있는 사업들은 3단계 기획으로 담을 것

[시사점, 합의사항]

- 1) **국비사업 보완(기획, 정비) 및 역량강화** : 가이드라인 등 도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마을 복지 측면에 편중되지 않도록 단계별 유도, 단, 시군과 마을에서 자유롭게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가질 것. 신규 사업보다는 **기존 사업 정비와 연계** 방안 모색
- 2) **연계, 협력 방향** : 농촌마을지원과 **직접 추진 사업과 연계/협력 사업을 구분**하여 틀 구축. 연계/협력 부분은 **3농혁신과 맞물려 제안**하며 추진

31

나.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설문조사
개요

- 조사 대상 : 농촌 마을 리더, 중간지원조직 상근자, 마을 활동가, 담당 공무원 등
- 조사 기간 : 10.23(월)~11.4(토), **13일간** → 제4회 마을만들기 충남대회 현장 설문 포함
- 배포 및 회수 : SNS를 활용한 **온라인 설문 조사** → 277부 회수
- 조사 항목 : 총 30문항 _ 개인 특성, 정책 선호도, 개인 희망 등 (**5단계 평가, 우선순위 평가** 등)
- 답변 배치 : 응답자 특성(공통) → 개별문항(공통) → 3개 그룹별 답변 → 자유응답(공통)

응답자
그룹 구분
(4구분)

- **마을리더** 그룹 : 현장포럼 마을을 포함하여 마을 사업 위원장과 이장, 부녀회장 등
- **활동가** 그룹 : 중간지원조직 상근자, 컨설턴트, 마을 사무장, 민간단체 활동가 등 지원 그룹
- **공무원** 그룹 : 행정 담당 공무원, 농어촌공사 직원(전직 포함)
- **기타** 그룹 : 일반 시민, 연구자 등

응답자
특성
(그룹별*
성별)

		성별		전체
		남자	여자	
마을리더	빈도	56	14	70
	그룹 중 %	80.0%	20.0%	100.0%
활동가	빈도	54	30	84
	그룹 중 %	64.3%	35.7%	100.0%
공무원	빈도	42	3	45
	그룹 중 %	93.3%	6.7%	100.0%
기타	빈도	55	23	78
	그룹 중 %	70.5%	29.5%	100.0%
전체	빈도	207	70	277
	전체 %	74.7%	25.3%	100.0%

- **3/4이 남성.**
- 공무원 그룹은 93.3%(42명)이 남성.
- 활동가 그룹은 여성 비율이 35.7%(30명).

32

응답자
특성2
(그룹별*
연령별)

		연령										전체
		30대 미만	31세~ 35세	36세~ 40세	41세~ 45세	46세~ 50세	51세~ 55세	56세~ 60세	61세~ 65세	65세~ 70세	70세 이상	
마을 리더	빈도	0	0	1	4	5	11	24	15	7	3	70
	그룹 중 %	0.0%	0.0%	1.4%	5.7%	7.1%	15.7%	34.3%	21.4%	10.0%	4.3%	100.0%
활동가	빈도	3	10	10	18	18	16	5	4	0	0	84
	그룹 중 %	3.6%	11.9%	11.9%	21.4%	21.4%	19.0%	6.0%	4.8%	0.0%	0.0%	100.0%
공무원	빈도	1	2	4	4	9	12	12	1	0	0	45
	그룹 중 %	2.2%	4.4%	8.9%	8.9%	20.0%	26.7%	26.7%	2.2%	0.0%	0.0%	100.0%
기타	빈도	4	6	10	7	20	10	13	5	1	2	78
	그룹 중 %	5.1%	7.7%	12.8%	9.0%	25.6%	12.8%	16.7%	6.4%	1.3%	2.6%	100.0%
전체	빈도	8	18	25	33	52	49	54	25	8	5	277
	그룹 중 %	2.9%	6.5%	9.0%	11.9%	18.8%	17.7%	19.5%	9.0%	2.9%	1.8%	100.0%

- 49.1%가 50세 미만.
- 활동가 그룹은 40대가 36명(42.8%).
- 공무원 그룹은 50대가 24명(53.4%).
- 마을리더 그룹은 51~65세가 50명(71.4%)

33

응답자
특성3
(그룹별*
연령별)

		연령										전체
		30대 미만	31세~ 35세	36세~ 40세	41세~ 45세	46세~ 50세	51세~ 55세	56세~ 60세	61세~ 65세	65세~ 70세	70세 이상	
마을 리더	빈도	0	0	1	4	5	11	24	15	7	3	70
	그룹 중 %	0.0%	0.0%	1.4%	5.7%	7.1%	15.7%	34.3%	21.4%	10.0%	4.3%	100.0%
활동가	빈도	3	10	10	18	18	16	5	4	0	0	84
	그룹 중 %	3.6%	11.9%	11.9%	21.4%	21.4%	19.0%	6.0%	4.8%	0.0%	0.0%	100.0%
공무원	빈도	1	2	4	4	9	12	12	1	0	0	45
	그룹 중 %	2.2%	4.4%	8.9%	8.9%	20.0%	26.7%	26.7%	2.2%	0.0%	0.0%	100.0%
기타	빈도	4	6	10	7	20	10	13	5	1	2	78
	그룹 중 %	5.1%	7.7%	12.8%	9.0%	25.6%	12.8%	16.7%	6.4%	1.3%	2.6%	100.0%
전체	빈도	8	18	25	33	52	49	54	25	8	5	277
	그룹 중 %	2.9%	6.5%	9.0%	11.9%	18.8%	17.7%	19.5%	9.0%	2.9%	1.8%	100.0%

- 49.1%가 50세 미만.
- 활동가 그룹은 40대가 36명(42.8%).
- 공무원 그룹은 50대가 24명(53.4%).
- 마을리더 그룹은 51~65세가 50명(71.4%)

34

응답자
특성4
(그룹별*
지역별)

		지역															전체	
		충남	전안	아산	서산	당진	논산	공주	보령	홍성	예산	부여	태안	서천	금산	청양		기타
마을 리더	빈도	3	-	9	-	5	7	4	13	7	9	3	2	3	1	4	-	70
	%	4.3%	-	12.9%	-	7.1%	10.0%	5.7%	18.6%	10.0%	12.9%	4.3%	2.9%	4.3%	1.4%	5.7%	-	100.0 %
활동가	빈도	18	1	3	1	1	1	3	7	12	2	1	3	8	2	6	15	84
	%	21.4%	1.2%	3.6%	1.2%	1.2%	1.2%	3.6%	8.3%	14.3%	2.4%	1.2%	3.6%	9.5%	2.4%	7.1%	17.9%	100.0 %
공무원	빈도	9	-	2	1	1	2	2	3	10	4	1	1	4	1	-	4	45
	%	20.0%	-	4.4%	2.2%	2.2%	4.4%	4.4%	6.7%	22.2%	8.9%	2.2%	2.2%	8.9%	2.2%	-	8.9%	100.0 %
기타	빈도	8	7	4	4	2	-	11	5	6	5	1	1	5	1	6	12	78
	%	10.3%	9.0%	5.1%	5.1%	2.6%	-	14.1%	6.4%	7.7%	6.4%	1.3%	1.3%	6.4%	1.3%	7.7%	15.4%	100.0 %
전체	빈도	38	8	18	6	9	10	20	28	35	20	6	7	20	5	16	31	277
	%	13.7%	2.9%	6.5%	2.2%	3.2%	3.6%	7.2%	10.1%	12.6%	7.2%	2.2%	2.5%	7.2%	1.8%	5.8%	11.2%	100.0 %

- 지역별로는 홍성, 보령, 공주/예산/서천 순서.
- 마을 리더 그룹은 보령시와 아산시/예산군에서 다수 참여.
- 활동가는 충남 전체와 홍성군이 다수 참여.
- 공무원은 홍성군과 충남도청에서 다수 참여
- 충남 이외에서도 다수 참여(31명, 11.2%)

35

응답자
특성5
(그룹별*
경력별)

		경력(활동/근무기간)							전체
		1년 미만	1~2년 이하	3~5년 이하	5~7년 이하	8~10년 이하	10년 이상	해당 없음 (일반시민)	
마을리더	빈도	4	11	25	9	13	7	1	70
	%	5.7%	15.7%	35.7%	12.9%	18.6%	10.0%	1.4%	100.0%
활동가	빈도	5	17	19	12	14	14	3	84
	%	6.0%	20.2%	22.6%	14.3%	16.7%	16.7%	3.6%	100.0%
공무원	빈도	8	9	19	3	-	2	4	45
	%	17.8%	20.0%	42.2%	6.7%	-	4.4%	8.9%	100.0%
기타	빈도	11	10	16	5	6	9	21	78
	%	14.1%	12.8%	20.5%	6.4%	7.7%	11.5%	26.9%	100.0%
합계	빈도	28	47	79	29	33	32	29	277
	%	10.1%	17.0%	28.5%	10.5%	11.9%	11.6%	10.5%	100.0%

- 34.0%가 5년 이상.
- 대체로 3~5년 경력이 가장 많음.
- 공무원 그룹은 5년 이상이 5명(11.1%)에 불과함

36

응답자
특성6
(그룹별*
경험별)

		경력(활동/근무기간)							전체
		1년 미만	1~2년 이하	3~5년 이하	5~7년 이하	8~10년 이하	10년 이상	해당 없음 (일반시민)	
마을리더	빈도	4	11	25	9	13	7	1	70
	%	5.7%	15.7%	35.7%	12.9%	18.6%	10.0%	1.4%	100.0%
활동가	빈도	5	17	19	12	14	14	3	84
	%	6.0%	20.2%	22.6%	14.3%	16.7%	16.7%	3.6%	100.0%
공무원	빈도	8	9	19	3	-	2	4	45
	%	17.8%	20.0%	42.2%	6.7%	-	4.4%	8.9%	100.0%
기타	빈도	11	10	16	5	6	9	21	78
	%	14.1%	12.8%	20.5%	6.4%	7.7%	11.5%	26.9%	100.0%
전체	빈도	28	47	79	29	33	32	29	277
	%	10.1%	17.0%	28.5%	10.5%	11.9%	11.6%	10.5%	100.0%

- 34.0%가 5년 이상.
- 대체로 3~5년 경험이 가장 많음.
- 공무원 그룹은 5년 이상이 5명(11.1%)에 불과함

37

응답자
특성7
(그룹별*
참여정도)

		참여활동(다중 선택)										합계
		1) 농촌 현장포 럼	2) 희망마을 선행사업	3) 창조적 마을만들 기	4) 권역사 업, 중심 지활성 화사업	5) 6차산업 관련 사업	6) 마을기업 , 사회적 기업, 등조합	7) 시·군 개최 마을대학	8) 충남 마을만들 기 대화마당	9) 마을만들 기 충남대회	10) 마을만들 기 전국대회	
마을리더	총계	48	37	31	24	23	28	25	24	29	17	70
	전체%	17.3%	13.4%	11.2%	8.7%	8.3%	10.1%	9.0%	8.7%	10.5%	6.1%	25.3%
활동가	총계	50	32	37	38	31	39	31	38	36	31	84
	전체%	18.1%	11.6%	13.4%	13.7%	11.2%	14.1%	11.2%	13.7%	13.0%	11.2%	30.3%
공무원	총계	23	21	29	29	6	7	16	18	17	15	45
	전체%	8.3%	7.6%	10.5%	10.5%	2.2%	2.5%	5.8%	6.5%	6.1%	5.4%	16.2%
기타	총계	21	13	17	26	16	32	12	9	7	8	78
	전체%	7.6%	4.7%	6.1%	9.4%	5.8%	11.6%	4.3%	3.2%	2.5%	2.9%	28.2%
합계	총계	142	103	114	117	76	106	84	89	89	71	277
	전체%	51.3%	37.2%	41.2%	42.2%	27.4%	38.3%	30.3%	32.1%	32.1%	25.6%	100.0%

- 현장포럼은 절반 이상(51.3%) 경험.
- 가장 낮은 경험은 마을만들기 전국대회(25.6%), 6차산업화(27.4%).
- 공무원 그룹은 농식품부 사업 경험자가 많음

38

응답자
특성8
(그룹별*
주민유형)

		주민유형						전체
		선주민	귀향인	귀농인	귀촌인	직장인	기타	
마을리더	빈도	22	26	13	6	1	2	70
	%	31.4%	37.1%	18.6%	8.6%	1.4%	2.9%	100.0%
활동가	빈도	20	8	8	8	29	11	84
	%	23.8%	9.5%	9.5%	9.5%	34.5%	13.1%	100.0%
공무원	빈도	8	-	1	-	35	1	45
	%	17.8%	-	2.2%	-	77.8%	2.2%	100.0%
기타	빈도	12	10	8	3	29	16	78
	%	15.4%	12.8%	10.3%	3.8%	37.2%	20.5%	100.0%
합계	빈도	62	44	30	17	94	30	277
	%	22.4%	15.9%	10.8%	6.1%	33.9%	10.8%	100.0%

- 선주민과 귀향인이 함께 38.3%. 귀농귀촌인은 16.9%
- 공무원 포함 직장인은 33.9%.
- 마을 리더 그룹에서 귀농귀촌인은 19명(27.2%)으로 전체의 1/4 정도.

- ① 선주민(고향을 떠나지 않고 계속 거주)
- ② 귀향인(고향에 돌아옴)
- ③ 귀농인(연고 없이 들어와 농사를 어느 정도 지음)
- ④ 귀촌인(연고 없이 들어와 농사는 거의 하지 않음)
- ⑤ 직장인(연고와 관계없이 그냥 직장 생활하며 살고 있음. 공무원 포함)
- ⑥ 기타(도시 계속 거주 등)

39

공통질문1
(정책방향
지지도)

[질문] 귀하는 아래와 같은 행정의 정책, 지침, 방향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 1) 마을 역량이 성장하는 단계에 맞추어 행정사업비가 작은 사업에서 큰 사업으로 지원해야 한다
- 2) 마을총회에서 승인이 되면 주민 다수가 아니라 소수(5인 이상)라도 마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3) 행정 지원 사업은 하드웨어 사업보다 3백만원 내외의 소액 프로그램 사업이 훨씬 많아야 한다
- 4) 충남농촌활성화지원센터(공주대)가 전담하는 현장포럼은 시·군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 5) 충남도는 시·군마다 농촌 마을만들기(공동체) 중간지원조직을 설치, 운영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룹		공통1.1 단계적 지원	공통1.2 소수사업 추진	공통1.3 소액사업 추진	공통1.4 현장포럼 시군추진	공통1.5 중간조직설치
마을리더	평균(N=70)	4.4571	4.3714	3.3714	3.8571	4.4429
활동가	평균(N=84)	4.4405	3.6786	3.6190	3.6747	4.2262
공무원	평균(N=45)	4.6222	3.6000	3.8444	3.9773	4.7556
기타	평균(N=78)	4.2692	3.6795	3.7179	3.8077	4.2338
합계	평균(N=277)	4.4260	3.8412	3.6209	3.8073	4.3696

- 단계별 지원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적극 동의.
- '5인 이상의 소수가 사업 추진'하는 것에 대해 마을 리더 그룹이 타 그룹에 비해 가장 높게 선호.
- 시군 중간지원조직은 공무원 그룹이 가장 높게 선호.

40

공통질문2
(연계협력
영역)

[질문] 귀하는 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협력해야 할 행정 사업(업무)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세 가지를 골라주십시오.

- ① 농촌관광(체험휴양) ② 6차산업(농가공, 직거래) ③ 귀농귀촌(청년귀농)
④ 로컬푸드(학교급식) ⑤ 사회적경제(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⑥ 도시재생
⑦ 주민자치(동네자치) ⑧ 평생학습(마을동아리) ⑨ 지역복지 ⑩기타()

		공동2. 협력해야 할 영역(세가지 응답)									합계
		농촌 관광	6차산업	귀농 귀촌	로컬 푸드	사회적 경제	도시 재생	주민 자치	평생 학습	지역 복지	
마을리더	총계	2	37	19	5	41	8	27	18	20	70
	전체%	0.7%	13.4%	6.9%	1.8%	14.8%	2.9%	9.7%	6.5%	7.2%	25.3%
활동가	총계	5	25	30	8	35	12	55	32	28	84
	전체%	1.8%	9.0%	10.8%	2.9%	12.6%	4.3%	19.9%	11.6%	10.1%	30.3%
공무원	총계	2	17	25	3	14	7	23	21	8	45
	전체%	0.7%	6.1%	9.0%	1.1%	5.1%	2.5%	8.3%	7.6%	2.9%	16.2%
기타	총계	3	29	26	17	40	17	37	32	17	78
	전체%	1.1%	10.5%	9.4%	6.1%	14.4%	6.1%	13.4%	11.6%	6.1%	28.2%
합계	총계	12	108	100	33	130	44	142	103	73	277
	전체%	4.3%	39.0%	36.1%	11.9%	46.9%	15.9%	51.3%	37.2%	26.4%	100.0%

- 전체적으로 주민자치(51.3%), 사회적경제(46.9%)가 높은 비율, 나머지 6차산업과 평생학습, 귀농귀촌이 36.1%~39.6% 차지. 농촌관광은 4.3%로 가장 낮게 나타남.
- 마을 리더 그룹은 사회적경제 41명, 6차산업 37명으로 소득경제 측면에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임. 활동가 그룹은 주민자치 55명, 사회적경제 35명으로 가치지향적 영역에 높은 선호도. 공무원들은 귀농귀촌 25명, 주민자치 23명으로 비경제적 영역에 높은 선호도.
- 농촌관광은 세가지를 선택하는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그룹이나 매우 미미하게 나타남

41

공통질문3
(행정지원)

[질문] 귀하는 귀하는 '행정이 마을 주민 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과 관련하여 다음에 대해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 1) 행정 부서에 흩어져 있는 여러 마을 사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전담부서를 신설 혹은 지정해야 한다
- 2) 사업 관련 부서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협의, 조정할 수 있는 '행정지원협의회'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해야 한다
- 3) 공무원 순환보직제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민간의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야 한다
- 4) 행정과 민간이 공동학습을 통해 마을만들기(공동체)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센터 설치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그룹		공동 3.1 총괄부서설치	공동 3.2 행정지원협의회	공동 3.3 조례제정
마을리더	평균(N=70)	4.7143	4.7143	4.5429
활동가	평균(N=84)	4.6786	4.5833	4.5476
공무원	평균(N=45)	4.6889	4.5556	4.6667
기타	평균(N=78)	4.3718	4.5000	4.3333
합계	평균(N=277)	4.6029	4.5884	4.5054

- 모든 항목에 대해 그룹별 차이 없이 적극적으로 '매우 필요' 의견

42

공통질문4
(3단계
정책방향)

[질문] 현재 '마을만들기 3단계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중입니다. 다음의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지요?

- 1) 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하여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관련 업무를 '최대한' 통합**해야 한다
- 2) 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읍·면의 **주민자치위원회 활동과 최대한 연계**해야 한다
- 3) **모든 '읍·면'마다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 대해 행정은 매년 소액이라도 지원해야 한다
- 4) 국도비 지원사업만이 아니라 **모든 시·군마다 고유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해야 한다
- 5) 모든 마을에 골고루 나누어 지원하는 것보다 **열심히 노력하는 마을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

그룹		공통4_1 관련 업무 통합	공통4_2 주민자치위원회 회 연계	공통4_3 마을발전계획 지원	공통4_4 시군 고유 사업 발굴	공통4_5 활동마을 우선 지원
마을리더	평균(N=70)	4.7143	3.8696	4.3714	4.7286	4.4857
활동가	평균(N=84)	4.6190	4.2738	4.2143	4.5357	4.3452
공무원	평균(N=45)	4.5556	4.4444	3.9778	4.4889	4.6667
기타	평균(N=78)	4.5000	4.3590	4.0000	4.3590	4.2949
합계	평균(N=277)	4.5993	4.2246	4.1552	4.5271	4.4188

- 그룹별로 큰 차이 없이 대체로 적극적으로 '매우 동의' 표시.
-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연계 필요성에 대해 마을 리더 그룹은 상대적으로 낮게 동의.

43

공통질문5
(마을 당면
과제)

[질문] 귀하는 농촌 마을이 처한 현실을 고려할 때 다음 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게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 가지**를 골라주십시오.

- ① 농산물의 안정된 판로 확보 ② 농산물 가공 활성화 ③ 농촌체험 활성화
- ④ 유희 농지의 공동이용 ⑤ 마을복지(특히 노인복지) ⑥ 주민의 여가, 문화생활
- ⑦ 교통문제(이동권) ⑧ 농업후계자 확보 ⑨ 인구 증가(귀농귀촌) ⑩ 기타()

		공통5_당면과제(세가지 선택)								합계
		공통5.1 농산물 판로확보	공통5.2 농가공 활성화	공통5.3 농촌체험 활성화	공통5.4 유희지 공동이용	공통5.5 마을(노 인)복지	공통5.6 여가문화	공통5.7 교통문제	공통5.8 농업후계 자확보	
마을리더	총계	3	32	30	6	36	28	4	10	70
	전체%	1.1%	11.6%	10.8%	2.2%	13.0%	10.1%	1.4%	3.6%	25.3%
활동가	총계	8	20	21	8	40	45	13	11	84
	전체%	2.9%	7.2%	7.6%	2.9%	14.4%	16.2%	4.7%	4.0%	30.3%
공무원	총계	1	8	7	13	24	17	7	8	45
	전체%	0.4%	2.9%	2.5%	4.7%	8.7%	6.1%	2.5%	2.9%	16.2%
기타	총계	4	18	16	22	34	36	19	11	78
	전체%	1.4%	6.5%	5.8%	7.9%	12.3%	13.0%	6.9%	4.0%	28.2%
합계	총계	16	78	74	49	134	126	43	40	277
	전체%	5.8%	28.2%	26.7%	17.7%	48.4%	45.5%	15.5%	14.4%	100.0%

- 전체적으로 마을복지 48.4%, 여가문화생활 45.5%, 인구 증가(귀농귀촌) 42.6%가 높게 나타남. 농산물 판로 확보(5.8%)는 매우 낮게 나타남.
- 그룹별로 당면과제에 대한 문제인식은 다르게 나타남. 마을 리더는 마을복지와 여가문화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농산물 가공과 농촌체험에도 높은 선호도를 보임. 활동가와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인구증가(귀농귀촌)에도 높은 선호도가 나타남.

44

개별질문
마을리더
1
(마을 미래)

[질문] 3-1. 귀하는 과거 5년 전과 비교하여 “우리 마을이 더 살기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3-2. 귀하는 앞으로 5년 후에 “우리 마을이 더 살기 좋아질 것이다”고 생각하십니까?
3-3. 귀하는 앞으로 10년 후 내가 사는 마을 인구수가 어떻게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아주 부정 ② 부정 ③ 보통 ④ 긍정 ⑤ 아주 긍정 ⑥ 잘 모르겠음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리더1_마을발전인식	69	2.00	5.00	3.0290	1.28305
리더2_마을발전기대	69	2.00	5.00	4.0145	.89923
리더3_인구증가기대	69	1.00	5.00	3.0580	1.45404

3-1. 과거 5년 전과 비교하여 “우리 마을이 더 살기 좋아졌다

--> 매우 좋아졌다는 응답은 1명도 없고, 대체로 별반 차이가 없다는 인식

3-2. 앞으로 5년 후에 우리 마을이 더 살기 좋아질 것이다

--> 아주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없고, 오히려 더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큼

3-3. 귀하는 앞으로 10년 후 내가 사는 마을 인구수가 어떻게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 대체로 별반 차이가 없으리라 기대함. 줄어든 것이라는 우려가 적은 것은 그나마 비관적이지 않다고도 생각한다고 볼 수 있음

45

개별질문
마을리더
2
(나의 미래)

[질문] 귀하는 현재 마을에 사시면서 다음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 1) 나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우리 마을에 계속 살 것이다. 가능하면 요양원도 직접 만들 것이다
- 2) 나는 **여력이 되는 한** 마을 발전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지금처럼 계속 할 것이다
- 3) 나는 자식이나 동창생, 지인에게 **고향에 돌아오라**고 꼭 권장할 것이다
- 4) 내가 지금 **사는 집과 경작하는 땅**은 우리 마을 발전에 기여할 사람에게만 팔 것이다.
- 5) 나는 10년 후에도 우리 마을 발전을 위해 노력할 **후계 지도자**가 계속 있을 것이라 믿는다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리더4_1 평생 거주 의사	68	2.00	5.00	4.6618	.66040
리더4_2 활동 지속 의사	69	3.00	5.00	4.8116	.54974
리더4_3 귀농귀촌 권유 의사	68	3.00	5.00	4.3529	.84226
리더4_4 마을 주민 토지 판매 의사	69	1.00	5.00	4.2464	.94567
리더4_5 후계 지도자 기대	69	1.00	5.00	4.0435	1.00637

▪마을 리더들은 매우 적극적으로 “죽을 때까지 마을에 계속 살고, 활동도 지속할 것이며, 주변 사람들에게 고향 돌아오라 권유할 것”이라고 생각함.

▪또 어느 정도 “지금 사는 집과 땅을 마을에 사는(살) 사람에게 팔 것이고, 후계자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46

개별질문_
활동가1
(마을 미래)

[질문] 3-1. 귀하는 마을 주민과 행정(공무원)을 모두 접하면서 최근 2~3년 전과 비교하여 “민-관 협력 관계가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2. 앞으로 10년 후 “우리 지역의 농촌 마을이 더 살기 좋아질 것이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아주 부정 ② 부정 ③ 보통 ④ 긍정 ⑤ 아주 긍정 ⑥ 잘 모르겠음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활동가1_민관협력발전인식	83	1	5	3.76	.820
활동가2_마을발전기대	83	1	5	3.55	.966

3-1. 최근 2~3년 전과 비교하여 “민-관 협력 관계가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

--> 조금 나아진 정도로 인식함(3.76). 하지만 마을리더(3.02)보다 더욱 긍정적인

3-2. 앞으로 10년 후 우리 지역의 농촌 마을이 더 살기 좋아질 것이다

--> 지금보다 조금 나아질 것으로 기대함. 마을 리더(4.01)보다는 상대적으로 비관적

47

개별질문_
활동가2
(나의 미래)

[질문] 귀하는 마을만들기 활동을 하시면서 다음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 1) 나는 내 자식이나 동창생, 지인에게 우리 지역으로 귀향귀농귀촌을 꼭 권장할 것이다
- 2) 나는 큰 변화가 없다면 현재의 마을만들기 지원 활동을 5년 후에도 열심히 계속해갈 것이다
- 3) 나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더 공부하고 나만의 전문 영역도 개척해 갈 것이다
- 4) 농촌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행정의 업무조정과 조직 개편이 꼭 필요하다
- 5) 농촌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 영역과 반드시 연계, 협력해야 한다
- 6) 농촌 마을(행정리)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읍·면소재지 주민자치위원회 활동과 꼭 결합해야 한다
- 7) 마을만들기(공동체)의 중간지원조직은 꼭 필요하고 가능하면 통합형 지원센터가 되어야 한다
- 8) 나도 열심히 활동해서 언젠가 우리 마을의 이장(위원장)을 꼭 해보고 싶다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활동가3_1 귀농귀촌 권유 의사	84	1	5	3.90	.952
활동가3_2 활동 지속 의사	83	1	5	4.24	.905
활동가3_3 전문영역 개척 의사	83	3	5	4.73	.520
활동가3_4 행정개편 필요 인식	82	3	5	4.56	.630
활동가3_5 사회적경제 연계 필요 인식	83	1	5	4.35	.818
활동가3_6 주민자치 연계 필요 인식	83	2	5	4.10	.932
활동가3_7 중간조직 필요 인식	83	1	5	4.33	.925
활동가3_8 마을이장 희망 의사	83	1	5	3.17	1.228

■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동의를 표시함. 특히 ‘나만의 전문 영역 개척’ 의지와 ‘행정 업무조정과 조직 개편’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은 1명도 없고 아주 적극적인 동의를 표시함.

■ 상대적으로 이장을 맡아보고 싶어하는 의사는 보통 정도임.

48

개별질문_
공무원1
(마을 미래)

[질문] 3-1. 최근 2~3년 전과 비교하여 “민-관 협력 관계가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2. 앞으로 10년 후 “우리 지역의 농촌 마을이 더 살기 좋아질 것이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아주 부정 ② 부정 ③ 보통 ④ 긍정 ⑤ 아주 긍정 ⑥ 잘 모르겠음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공무원1_민관협력발전 인식	44	3	5	4.32	.639
공무원2_마을발전 기대	45	1	5	3.73	1.074

3-1. 최근 2~3년 전과 비교하여 “민-관 협력 관계가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
--> 많이 나아졌다고 평가하고 있고, 활동가 그룹(3.76)에 비해 훨씬 높은(4.32) 동의
를 표시함. 하지만 **마을리더의 평가(3.02)와는 대조적으로 더욱 긍정적인**
3-2. 앞으로 10년 후 우리 지역의 농촌 마을이 더 살기 좋아질 것이다
--> 활동가 그룹과 마찬가지로 조금 나아지는 정도로 기대하지만 마을 리더(4.01)보다
는 상대적으로 비관적임

49

개별질문_
공무원2
(나의 미래)

[질문] 귀하는 **마을만들기** 업무를 보시면서 다음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1) 나는 내 자식이나 동창생, 지인에게 우리 지역으로 귀향귀농귀촌 을 꼭 권장할 것이다					
2) 나는 가능하면 인사 이동 없이 현재의 마을만들기 업무를 계속 담당 해보고 싶다					
3) 나는 농촌 마을 위원장들이 사심(私心)없이 순수하게 희생봉사 하는 사람들이라 생각한다					
4) 농촌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행정의 업무조정과 조직 개편 이 꼭 필요하다					
5) 농촌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 영역과 반드시 연계, 협력 해야 한다					
6) 농촌 마을(행정리)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읍·면소재지 주민자치위원회 활동과 꼭 결합 해야 한다					
7) 마을만들기(공동체)의 중간지원조직은 꼭 필요 하고 가능하면 통합형 지원센터가 되어야 한다					
8) 기회만 주어진다면 5년간 계속 면장 을 하면서 마을만들기 선진사례를 만들어보고 싶다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공무원3_1 귀농귀촌 권유 의사	45	2	5	3.91	.733
공무원3_2 업무 지속 의사	45	1	5	3.76	1.111
공무원3_3 마을위원장에 대한 생각	45	2	5	3.69	.949
공무원3_4 행정 조직개편 필요 인식	45	3	5	4.49	.727
공무원3_5 사회적경제 연계 필요 인식	44	2	5	4.36	.917
공무원3_6 주민자치 연계 필요 인식	45	2	5	4.11	.775
공무원3_7 중간지원조직 필요 인식	45	4	5	4.69	.468
공무원3_8 면장 희망 의사	44	1	5	4.23	.985

▪ **중간지원조직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은 1명도 없으며 절대적으로 필요를 주장함.
▪ **업무조정과 조직 개편 필요성**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동의함.
▪ 마을 위원장에 대해서는 “사심없이 순수하게 희생봉사 하신다”고 충분히 동의하지 않고 있음.
▪ 가능하면 “현재 업무를 계속 담당해보고 싶다”는 의견도 상대적으로 낮게 표시함.

50

자유 의견1

[질문] 끝으로 우리 지역 마을만들기의 발전과 희망마을 5개년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남기고 싶은 한 마디가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계획 수립 방법

- 마을 리더들의 의견 수렴이 중요, 전문가가 주도하면 안됨
- 1) 사람을 기르고, 조직화하는 일에 집중할 것. 2) 후계자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할 것. 3) 무언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것. 4) 부문간 연계 협력을 강화할 것.
- 5개년 계획은 너무 짧은 계획
- 5년 뒤 변화된 모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에 대한 평가시스템 구축도 필요
- 정치상황 변화와 관계없이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 충남도 고유의 마을사업 발굴 및 사업추진 필요(대규모 사업)
- 시군별 특성화 된 계획 포함

51

자유 의견2

기본계획의 목표와 영역

- 농산물 가격 안정, 전체 농업인 삶의질 증진 정책, 마을의 협동조직화 필요.
- 아름다운 경관과 깨끗한 농촌마을
-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
- 미래 세대를 생각한 청소년의 참여
- 청년 귀농귀촌을 위한 멘토링 시스템, 경제적 지원과 주거지원정책
- 농촌 일손 부족, 농촌 어르신과 여성, 외국인 근로자들의 문화 복지 프로그램
- 선택과 집중을 통한 거점 지역(마을) 육성과 주변 확산 전략
- 활동가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방점, 사회적경제 영역과 통합관리
- 귀향인을 우선 고려한 귀농귀촌 정책
- 평생학습을 통한 역량개발과 삶의 질 향상계획 포함
- 도시재생(도시)과 마을만들기(농촌)가 연계 발전
- 농촌과 어촌의 균형 있는 발전

52

자유 의견3

민관협치와 행정지원체계 정비

- 최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부터 교육, 공무원들의 자세가 바뀌어야,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도로가 비포장이면 쓸모가 없죠.”
- 담당부서 공무원 인사이동 자주 안되게 부탁, “행정관의 잦은 인사이동과 전문지식 부족으로 마을보다 뒤편 행정의 많고 정보소통도 느리다.”
- 각 부처 마을 사업을 시군에서는 단일 창구로 통합, 관련 업무가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부서 통합, 통합적인 행정 지원
- 관련 부서 사이의 업무 협조체계 구축, “왜 행복한 마을만들기를 하자는데 다른 실과에서는 왜 재를 뿌리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 “농촌이 점점 공업화 되고 있다.” 농촌 경관환경을 보전하고 개발규제를 강화하는 기본계획 수립이 우선 필요, 규제 강화 필요, <→
- 마을만들기 또는 마을기업을 만드는 과정에 규제 철폐

53

자유 의견4

중간지원조직과 민-민협력

- 중간지원조직은 행정에서 책임감을 갖고 추진.
- 중간지원조직 구성원에 반드시 현장 출신 포함, 전문성과 의지가 중요
- 낭비되는 돈이 너무 많다. “안타깝고 울분이 치밀 때가 많다. 센터 직원이 주인공이 돼서 주민들을 엮어 끌고가는 게 잘하는 게 아니다. 지혜와 따뜻함을 갖춘 좋은 안내자의 성품과 자질을 가진 사람이 돼야 한다.”
- 민관협력체계와 네트워크 구축이 절실, 위원회와 협의회가 활성화되고 자율적 판단에 따라 통합네트워크 형성 추진, 다양한 관련 단체 발굴과 지원
- 중간지원조직(민관협력)이 시급, 여기에 지역언론(풀뿌리지역신문)의 참여
- 마을만들기와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의 통합 운영 필요
- 시군 중간지원조직에 충남도의 지속적인 행·재정적인 지원 필요
- 지역개발 전문가, 컨설턴트와 연계하는 프로그램 필요.(FD 또는 PM단 운영)
- 지자체 공무원, 농어촌공사, 농촌지도소와 마을지도자 그룹과 함께 하는 각 지역별 중간(지원)조직 구성

54

행정의 마을사업 내용과 지원방법론

- **의욕이 있는 마을을 우선 지원** + 쇠퇴해가는 마을 역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 잘 하지 못하는 **초보마을에 더 많은 지원과 관심과 격려** 필요
- 사무, **행정 서류가 너무 복잡**하여 비현실적. 농민과의 많은 만남과 소통이 중요
- 행정 매뉴얼보다 마을 특성을 우선 고려.
- **투명한 자금관리**, 지원금 사용에 대한 철저한 감사, 개인자금 착복 절대 불가.
- 점차적 성과를 보아서 다음 단계로 지원. 누구나 쉽게 참여하여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작은 사업이 중요**, 실질적인 소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 마을 사업 이전에 **마을문화자원조사**와 스토리텔링 마케팅 실시. “**현재 남아계신 노인들이 돌아가시면 문화자원을 알 수 없다**. 귀촌으로 사람이 들어와도 문화의 단절이 생긴다.”
- **취미 동아리**가 직업으로서 전환될 수 있도록 마을 밖과 적극 연계 필요
- **사업이 완료된 마을**에도 꾸준히 관심 필요. 현실적으로 **시설보수비 지원** 필요, 소득을 창출하여 유지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음.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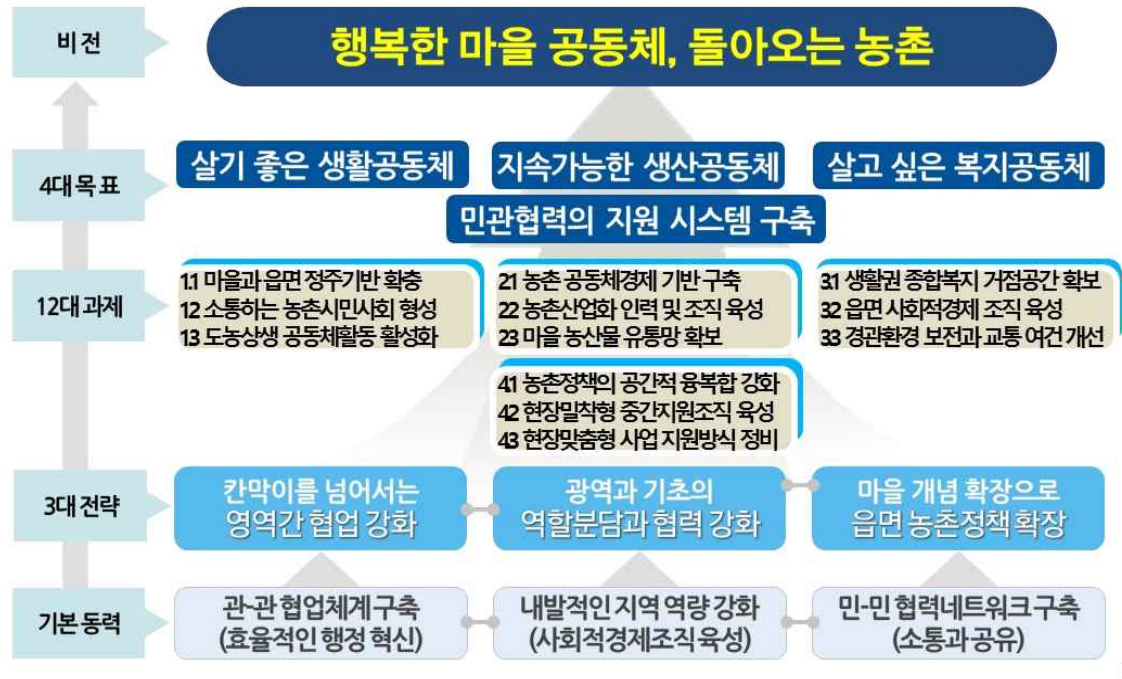
주민교육 강화와 마을 리더 지원

- **의식의 변화**, 자주적 정신 배양 필요. “**현 세대에서 어려우면 다음 세대까지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추진. 여전히 마을만들기라는 단어조차 생소함. **지속적인 홍보** 필요.
- **마을 사업 정보**는 더 많이 제공하고, 도시에 거주하는 비농민에게도 제공
- 우수 마을 사례를 이웃 마을로도 전파할 수 있는 프로세스 정립 필요
- 마을 리더에게 지속적으로 **동기를 부여하고 사기를 진작**하는 정책 필요
- **리더의 포기는 사업의 중단**, 마을에서의 봉사 강요, 관에서의 무관심이 심각. 리더의 활동에도 **현금 보상이 필요**. “공무원이나 지원센터에서 무보수 몇 명? 월급 받는 리더 전국에 몇 명? 마을리더가 얼마나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 몇몇의 리더가 끌고 가는 것이 진행이 신속하고, 효율적이어서 성공률이 높다.
- **작은 액수의 역량강화 교육**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
- 농촌 현실에서 **찾아가는 교육**이 중요. **마을맞춤형, 실사구시적 교육**(핵심, 역량, 능력, 의지) 필요. 인권, 성교육도 필요.

56

3.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및 중점 과제

가. 3단계 5개년 계획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57

나. 4대 목표와 12대 과제, 24대 당면과제

영역 기능	4대 목표	공간(환경)	사람(조직)	관계(활동·교류)
마을 활성화	정주 (삶터) 1. 살기 좋은 생활 공동체	1.1 마을과 읍면 정주기반 확충 •마을 주거 및 생활환경 정비 •읍면 소재지 중심기능 강화	1.2 소통하는 농촌시민사회 형성 •귀농귀촌 특별위원회 구성 •선주민-이주민 상생 지원	1.3 도농상생 공동체활동 활성화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출향인 고향 마을 회귀 지원
	생산 (일터) 2. 지속 가능한 생산 공동체	2.1 농촌 공동체경제 기반 구축 •마을공동체 영농 기반 정비 •읍면 거점농가공센터 지원	2.2 농촌산업화 인력 및 조직 육성 •6차산업화 인력, 조직 양성 •근거리 출퇴근 일자리 확보	2.3 마을 농산물 로컬푸드 유통망 확보 •학교(공공)급식 유통망 구축 •읍면 직거래 매장 설치
	여가 (놀터) 3. 살고 싶은 복지 공동체	3.1 주민생활권 종합복지 거점공간 확보 •마을회관의 복합공간화 지원 •읍면 종합복지공간 구축	3.2 읍면소재지 사회적경제 인력 및 조직 육성 •마을복지 인력 체계적 육성 •읍면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3.3 농촌 경관환경 보전과 교통 여건 개선 •마을가꾸기 사업단 운영 •읍면 교통여건 개선사업
정책 지원 체계 정비 (제도)	4. 민관 협력 지원 시스템 구축	4.1 농촌정책의 공간적 융복합 강화 •마을정책과 읍면정책의 결합 •경제정책 및 복지정책 결합	4.2 현장밀착형 인재와 중간지원조직 육성 •현장밀착형 인재 육성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육성	4.3 현장맞춤형 사업 및 예산 지원방식 정비 •역량강화와 공모사업 연계 •현장수요형 소액사업 확대

58

다. 4대 목표와 12대 과제 실현을 위한 주요 신규 사업(예시)

4대 목표		12대 과제	주요 신규 사업(예시)	
1. 살기 좋은 생활 공동체	=	1.1 마을과 읍면 정주기반 확충	농촌마을 경관사업 전문조직 육성 농촌마을 빈집 정비 실태분석과 지원	읍면소재지 중심지 활성화 사업 개선 읍면거점 문화공간 카페 조성
		1.2 소통하는 농촌시민사회 형성	귀농귀촌 장려 마을조직 정비 지원	마을귀농 장려 교재 및 교구 개발
		1.3 도농상생 공동체활동 활성화	지자체 내부 도농교류체험 활성화 지원	출향인의 고향마을 화귀 지원 시범사업
2. 지속 가능한 생산 공동체	=	2.1 농촌 공동체경제 기반 구축	농촌마을 공동체경영 시범사업	읍면거점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지원사업
		2.2 농촌산업화 인력 및 조직 육성	농촌 6차산업화 인력 및 조직 육성	
		2.3 마을 농산물 로컬푸드 유통망 확보	농촌마을 로컬푸드 생산자 조직화	읍면단위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3. 살고 싶은 복지 공동체	=	3.1 농촌 종합복지 거점공간 확보	농촌마을회관 리모델링 시범사업	읍면종합복지센터 기능융합 시범사업
		3.2 농촌 사회적경제 인력 및 조직 육성	농촌마을복지 인력육성 시범사업 농촌마을복지 전문사업단 육성	농촌읍면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3.3 농촌 경관환경 보전과 교통 여건 개선	농촌읍면 마을가꾸기사업단 운영	농촌읍면 교통여건 개선 시범사업
4. 민관 협력 지원 시스템 구축	=	4.1 농촌정책 공간적 융복합 강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읍면 주민자치정책 결합 농촌마을정책과 농업경제정책의 결합	농촌마을정책과 삶의 질 및 복지정책의 결합
		4.2 현장밀착형 중간지원조직 육성	충남형 농촌 광역사무장 제도 도입 및 확대 청년귀촌인의 마을 자원전수 조사 및 DB 구축	마을만들기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육성
		4.3 현장맞춤형 사업 지원방식 정비	농촌주민교육과 행정공모사업의 연계 강화 농촌 현장수요형 소액사업 확대(선행사업 등 개선)	농촌마을 사업공모 및 예산 집행방식 개선

59

(1) 활동공간 확대(행정리→읍면), (2) 현장 중심 융복합 강화, (3) 읍면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지원

[참고] 농촌마을의 정책 영역 : 정책간 융복합의 필요성

농촌마을지원과

영역	4대 목표	공간(환경)	사람(조직)	관계(활동·교류)
마을활성화 (정주·생산·여가·정책)	1. 살기 좋은 생활 공동체	1.1 마을과 읍면 정주기반 확충 •마을·읍면 창조적 마을 활성화	1.2 소통하는 농촌시민사회 형성 •귀농·선주 희망 마을 귀농 귀촌	1.3 도농상생 공동체활동 활성화 •도농교류·출향인 고 농촌 관광 귀 지원
	2. 지속 가능한 생산 공동체	2.1 농촌 공동체경제 기반 구축 •마을·읍면 공동체 영농 농가공 센터	2.2 농촌산업화 인력 및 조직 육성 •6차·근거 6차 산업 조직 양성 일자리 확보	2.3 마을 농산물 로컬푸드 유통망 확보 •학교(공공)·읍면 직 학교 급식 로컬 푸드
	3. 살고 싶은 복지 공동체	3.1 주민생활권 종합복지 거점공간 확보 •마을·읍면 마을 회관 농촌 복지	3.2 읍면소재지 사회적경제 인력 및 조직 육성 •마을·읍면 사회적 경제 체계적 육성 제도적 육성	3.3 농촌 경관환경 보전과 교통 여건 개선 •마을가꾸·읍면 교통 마을 경관 삶의 질
정책지원체계 정비(제도)	4. 민관 협력 지원 시스템 구축	4.1 농촌정책의 공간적 융복합 강화 •민관 협치 총괄 부서 동네 자치	4.2 현장밀착형 인재와 중간지원조직 육성 •현장·통합 역량 강화 지원 센터	4.3 현장맞춤형 사업 및 예산 지원방식 정비 •역량강화·현장수요 포괄 예산제 참여 예산제

60

4. 추진체계

가. 광역 추진체계 개편의 기본방향



61

[참고] 농식품부 농촌정책국 업무 영역과 충남도의 담당 부서 : 업무조정 및 조직개편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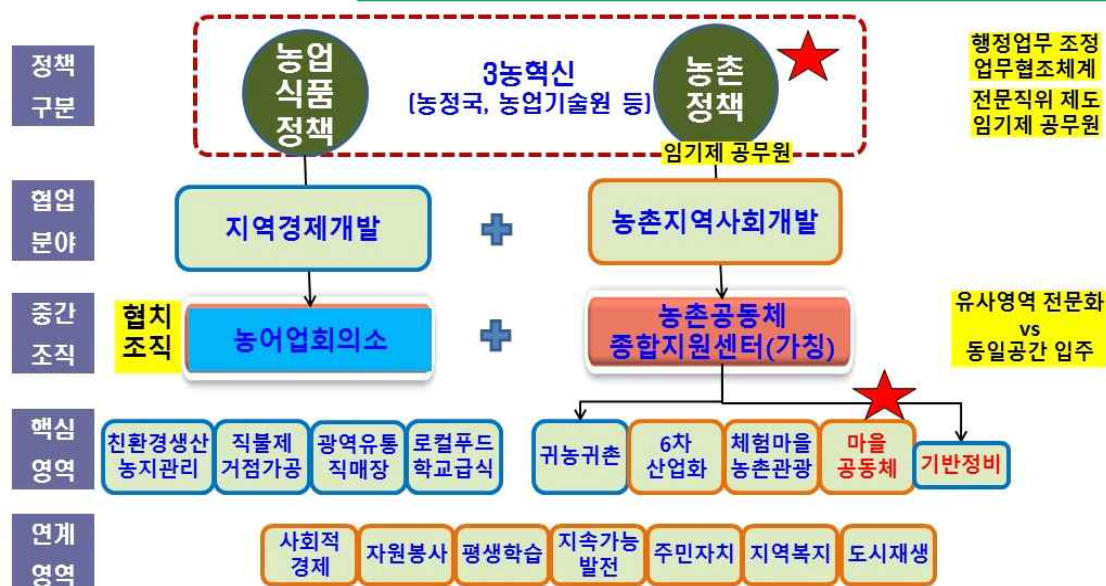
구분	주요 사업	충남도 담당 부서	비고
농촌 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정책 제도, 기획 등 총괄 · 삶의질 계획, 농어촌서비스 기준, 농어촌영향평가 · 귀농귀촌(도시민유치) 	<p>???</p> <p>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 농업기술원 귀농귀촌팀</p>	충남도는 농촌정책 총괄이 미흡
지역 개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농산어촌개발(창조적마을, 중심지활성화 등) · 행복마을 콘테스트, 행복생활권 · 색깔있는 마을, 현장포럼, 농촌활성화지원센터 · 농촌마을 리모델링, 주택개량 · 경관개선, 경관직불제, 농업유산 	<p>농촌마을지원과 마을가꾸기팀</p> <p>“</p> <p>“</p> <p>친환경농산과 친환경농업팀</p>	충남도는 마을가꾸기팀 대부분 담당
농촌 복지 여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업인 육성, 보육, 다문화가족 · 농어업인 복지(보험 등), 안전보건센터, 행복버스 · 농촌유학, 농촌축제 · 농촌공동체회(사회적경제) 	<p>농업정책과 도농상생복지팀</p> <p>“</p> <p>“</p> <p>“</p>	
농촌 산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농교류, 체험휴양마을, 마을 사무장, 농촌민박 · 농촌관광사업, 농가민박, 관광농원 · 6차산업화, 향토산업, 자원복합산업화 	<p>농업정책과 도농상생복지팀</p> <p>“</p> <p>농업정책과 농촌산업팀</p>	

62

충남 농정국				전북 농수산식품국			
과	팀	업무		업무	팀	과	
농촌 마을 지원과 (16) 직렬 중심	농지 관리 (4)	농지 전용 농지이용 관리	농지	농촌활력, 삶의질 향상 총괄 마을만들기 통합 관리체계 구축 중심지활성화, 창조적마을 지역여력강화, 소액 공모사업 마을 단위 신규 사업 발굴 추진 (과소화, 슬로푸드, 에너지자립마을)	생생 마을 (6)	농촌 활력과 (16) 업무 중심	
	마을 가꾸기 (4)	희망마을 만들기 총괄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업무 총괄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총괄 깨끗한 농업농촌 캠페인(CAC) 경지정리 및 기반정비 한계농지 및 개간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 지표수, 소규모 생활용수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농업 기반	기존 마을 사업 사후관리 농촌 재능나눔 지원사업 농촌관광, 체험휴양마을 총괄 농촌유학, 농촌축제, 고향마실			
	기반 시설 (4)	농업기반시설 농업용수 한해대책, 가뭄대책 저수지 준설		농촌유학, 경관직불제 귀농귀촌 정책 총괄 귀농귀촌 종합대책 사업	귀농 귀촌 (2)		
	정주 지원 (3)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신규마을 조성(전원마을) 취약지역 개선(새뜰마을) 편안한 물길, 배수개선 농업시설 재해예방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총괄 권역 사업, 신규마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새뜰마을, 테마공원, 작은목욕탕 농업기반정비사업 총괄	농촌 개발 (4)		
농업 정책과	농촌 산업 (4)	6차산업화 총괄 향토산업, 지역전략식품산업 두레기업 창업, 공동가공센 전통주, 전통발효식품	6차	농촌 융복합산업 총괄 6차산업화 지원센터 운영 향토산업, 지역전략식품산업 농촌공동체회사 육성 농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	농식품 6차 산업 (3)	농업 정책과	
	도농 상생 복지 (5)	농촌체험휴양마을, 마을사무장 도농교류, 농촌유학, 식생활 도시농업, 농촌축제, 고향마 여성농업인, 농촌복지	관광	농지이용 관리 농지전용 협의 등 농촌용수 개발, 수리시설 관리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괄 한해대책 및 한발대책	농지 관리 (3) 농업 기반 (5)		

나. 농업농촌정책과 중간지원조직 정책 영역(중장기구상)

- 1) 명확한 역할분담과 협력 : 농촌정책과 농업식품정책의 투트랙
- 2) 민관협치 기능 강화 : 중간지원조직과의 업무 연계 지원
- 3) 정책 영역간의 업무 협조 기능 강화



다. 읍면 정책의 의미와 과제, 주요 사업

· 관련 정책 영역 사이의 연계와 협력 강화 : 농촌정책 통합

읍면의
성격과
의미

- 한때는 지방자치의 최소 단위 : 직주근접의 주민 생활권 영역
- 교통 발달로 인한 주민 생활권 확대 경향에도 불구하고 최소 생활권 단위
- 정책적인 읍면 행정구역 통합은 부작용 초래 : 일본의 시정촌 통합 정책의 경험
- 읍면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통해 행정리 지원 기능 강화 : 상호작용 중시

정책과제와
방향

- 주민 생활권으로서 읍면 단위 기능 강화 : 2017년 4월 3농혁신대학 논의 결과 반영
-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 전환 준비 : 2단계 동네자치 기본계획 내용 반영
- 행안부의 혁신 읍면동 시범사업 구상 반영 : 마을을 '찾아가는' 서비스 기능 강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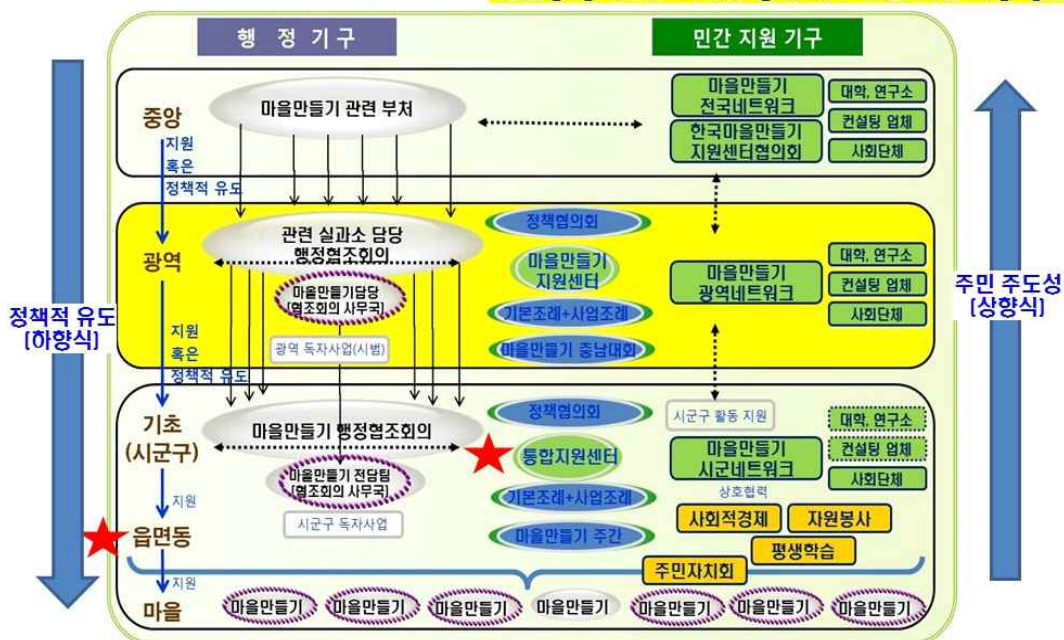
당면과제와
주요 사업

-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재정비 : 중심기능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조직 활성화
 - 광역의 보완 사업 발굴 및 지원 : 읍면 소재지 공공임대주택, 읍면 단위 교통 체계(순환 버스, 100원 택시 등) 개선,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등
 - 이통장협의회, 단위 농협, 방범대 등 기존 조직과의 연계성 강화
- 동네자치, 주민자치위원회 시범사업 확대
 - 특히, 읍면 단위 유휴 공공시설의 재활용 방안 : 경제동아리 활성화, 민간 거점공간 확보
 -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 : 복합 문화복지센터로 재편
- 주민자치위원회제도 개선 추진 : 동네자치 2단계 발전계획 연계
 - 당진시 모델의 확산 도입, 혁신 읍면동 정책의 적극적 도입 --> 행정리 지원 기능 강화
- 읍면 단위 사회적경제조직 및 중간지원조직 육성
 - 각종 정책 사업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육성 추진
 -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주민자치회의 사무국 기능을 사전 육성

65

[참고] 중앙과 광역, 기초, 읍면동의 행정 위계와 협력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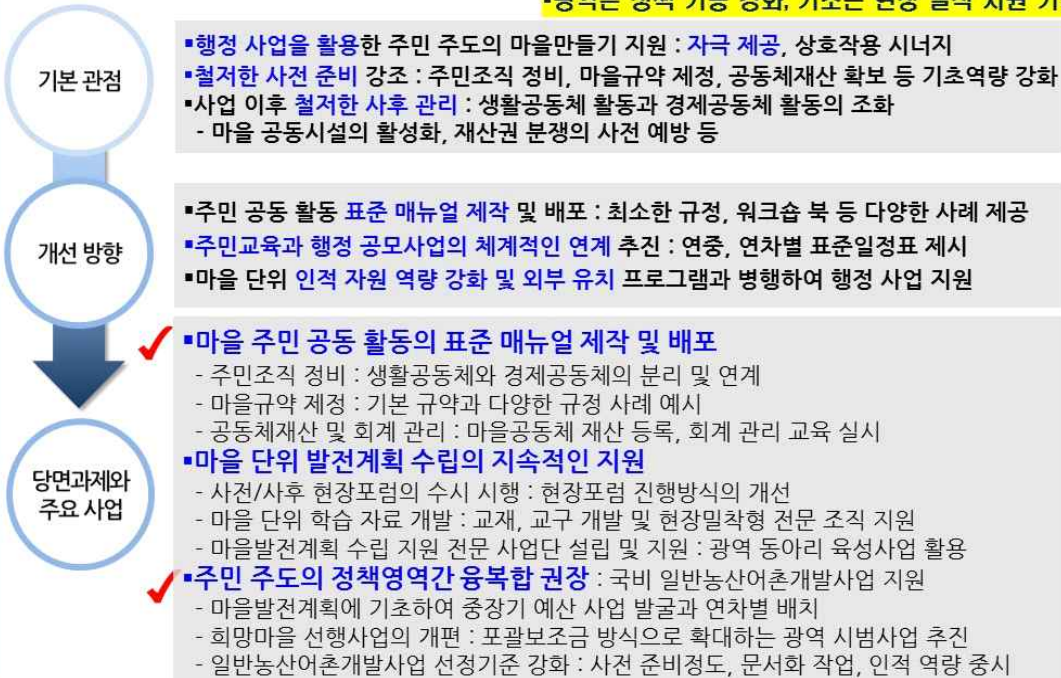
- 민관협치의 관점 + 정책적 유도(하향식) + 정책 결정(상향식)
- 읍면동 정책으로 확대를 통해 배후 마을 지원 기능 강화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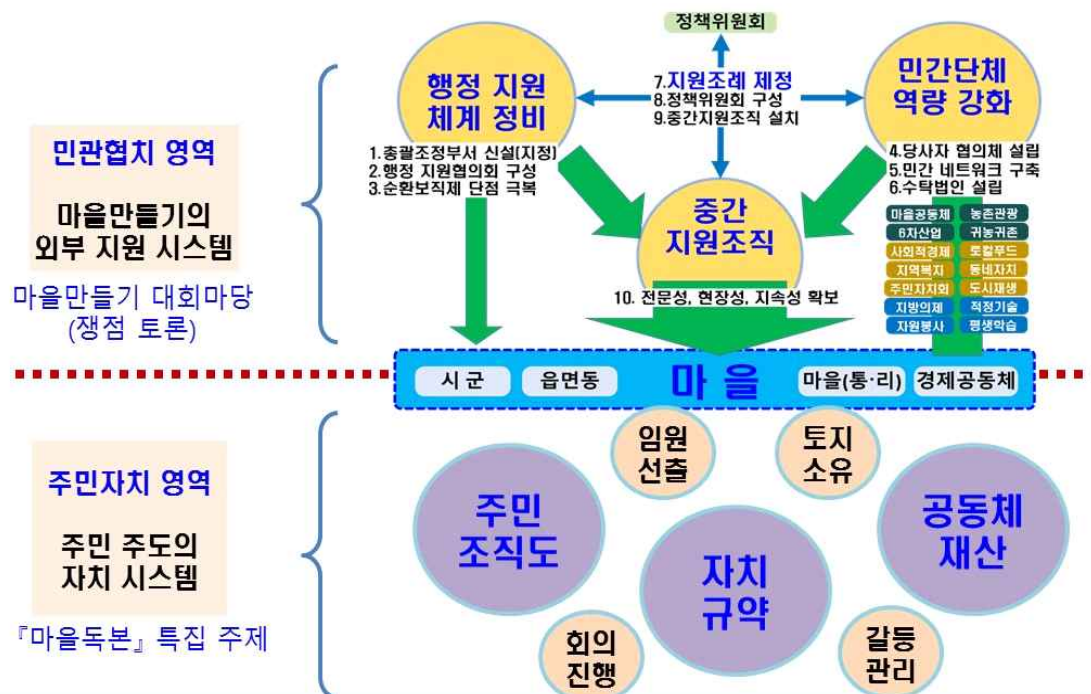
라. 마을 단위 지속가능한 추진체계 정비 과제와 주요 사업

·광역은 정책 기능 강화, 기초는 현장 밀착 지원 기능 강화



67

[참고] 마을만들기의 민관협치와 주민자치 영역 구분(개념도)



68

충남 마을만들기 3단계 5개년 기본계획(안)

VI. 향후 일정

1. 3단계 기본계획 수립과정의 성과와 한계

성과

- 충남 광역 마을정책의 전반적인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밖에서 바라본 충남**'의 장점과 과제 확인
- 온라인 설문조사**(277명 응답)를 통해 관심 촉구하고 확장 가능성 확인

한계

- 부족한 연구인력**과 일상업무 과다로 충분한 조사, 분석 부족
- 토론과 합의 부족**으로 행정 조직개편 및 2018년 예산에 미반영
- 충분한 의견 수렴이 부족하여 **기본계획안을 최종적으로 미확정**

당면 과제

- ✓ **2018년 상반기에 기본계획안 최종 확정**
 - 1월중에 연구진 및 민관TF팀 구성, 지속적인 의견 수렴과 토론
 - 기본계획안 초안의 요약본을 제작, 배포하여 공동학습 자료로 제공
- 민선7기의 마을만들기 실행계획 수립을 통해 미흡한 점 보완**
 - 4월중 3농혁신대학 마을만들기과정에서 종합토론 계기 확보
 - 민선7기의 마을만들기 중기계획, 단기계획 확정
- ✓ **2018년 하반기 행정조직 개편과 2019년 본예산 반영**
 - 행정의 업무 조적 및 조직 개편안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 추진
 - 2019년 본예산 수립과정에 기본계획안의 신규사업 반영
 - 2019년 시군 단위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을 권고하고 협의 계속

2. 향후 일정 : 마을만들기 기본계획(2018~2022) 수립



71

| 저자초청 강연회 - 발표자료 |

초청강연 “기적 아닌 날은 없다”

- 강위원 저자(여민동락공동체 살림꾼)

공동체, 농촌 그리고 마을복지

기적 아닌 날은 없다



contents

여민동락이
사는 법

여민동락
사람들

여민동락이
하는 일

여민동락의 미래,
마을의 미래

여민동락이 사는 법

여민동락이 사는 법

여민동락 생동·생, 평화·사랑, 자자·아들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여민동락공동체

여 민 동 락 이 사 는 법



세부부의 귀촌,
그것이 시작이었다.



지속가능한 공동체는
어떻게 가능한가.



분명한 건 좋은 삶에 대한 철학이다.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드는 일,
 농촌의 재생과 부흥을 꿈꾸는 일,
 농촌에서 공익적 시민으로 살아가기,
 그뿐이다.



온전한 마을살이의 시작은
'인사' 와 '수다'



관계맺기와 품어주기



가난하면 연대하고,
연대하면 묘안이 생기는 법



왼손에는 수첩을,
오른손엔 걸레를,
입가에는 미소를.



현장의 요청대로 맞춰 가면서
하나씩 최선의 성실로
임하는 수밖에……



주민들을 존엄하게 대하면,
주민들도 존엄하게
반응하는 법이다.



'나눔'은 힘이 세다



아침마다 어르신들께
 큰절을 드린다.
 절을 드리는 일은,
 절 받는 이에게
 “저를 드립니다.” 라는
 뜻이라 한다.



농사를 책으로 배운
도시 촌놈의
태평농법(?)



농사꾼이 곡식이나 푸성귀를 씨 뿌리고
싹 트고 줄기 뻗고 꽃 피고 열매 맺는 동안
제 아무리 부지런히 수고해 봤자,

결코 그것들이 스스로 그렇게 돼 가는
부산함을 앞지르지 못한다.



마을과 사람과 땅과
 어울려 한 몸이 되자는 뜻.
 여민동락의 첫 마음이다.



농사는
 생존이 걸린 절박한 노동이자
 생명을 학습하는 고된 수행이다.



이 땅을 지켜온
선배 농사꾼들에게
날마다 고개를 숙이는
반성으로



공동체의 마중물
'월요학당'



오묘한 행복
'10원짜리 커피자판기'



어떻게 살아야 존엄함을
지킬 수 있는지를 궁리하는 모습,
여민동락의 미래와 희망이다.



머리가 아닌
손발로 사는 삶.

여민동락이 하는 일

여민동락이
하는 일



건강한 어르신들에게는
스스로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행복 일자리를.



복지와 경제의 만남



송편을 빚는 일도
 주민들의 마을살이를
 방해하거나 농사를
 놓지 않게 하는 데
 신경을 쓴다.



제도권 기업이 아닌
 마을기업



좋은 뜻만으로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없다.
 유능해야 한다.



할매손에도 봄은 오려나?



송편 들인들 위한
 행복한 퇴임식은?



이문이 남지 않는
 마을가게, '동락점빵'



단순히 물건만 파는
장터가 아니다.



존재 자체로
마을을 이롭게 하는 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사랑방, '이동장터'



중고 탐차는
사연을 심고.....



뿌리가 튼튼하면
당연히 꽃은 핀다.



사회적협동조합,
동락점빵.



좋은 말만큼 현실은
 호락호락하질 않다.
 당장 농촌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한
 농민들의 전투가
 가혹하리만치 처절하다.



동락점빵 이동장터는
 마을살이의 꽃이다.



생의 끝자락에 외롭지 않게



사람과 사랑을 잇는
 공동체 학습장,
 버거운 일이나
 그 뜻만큼은 쏠쏠하다.



마을학교의 궁극적 목표
 마을공동체의 복원과 완성



돈에 의존하는 복지를
 넘어서



마을 스스로
배우고 익히면서



마을학교는 이미 풍년



비닐하우스는 농사꾼들에게
안방만큼이나 소중한 또 하나의 집이다.



‘몰래산타’ 대작전



여민동락 사람들

여민동락 사람들

여민동락 생동·생, 평화·사랑, 자자·아름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여민동락공동체

여민동락 사람들



여민동락 발농사 감독,
텃밭 매니저.



농토는
농민들 자부심의 전부다



밭은 밭으로 쓰고,
논은 논으로 써야 한다.



정직한 노동으로
땅과 함께한
영원한 농사꾼



한미한 살림살이지만
아이들에게 지갑을 열어
용돈을 나누셨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공부하는 게 절실해진다.

여민동락의 미래, 마을의 미래

여민동락의 미래,
마을의 미래



학교가 살아야
지역이 산다.



학교가 있어야
마을이 살고,
마을이 살아야
농촌이 산다.



가난한 자에 대한 존엄



마을에 아이들이 살고 있다



온 마을의 경사, 통학버스



문화의 아궁이, 마을체육관





학교 운동회가 아니라,
'마을대동회'



단기 주거형,
농촌여관이라도.....





머뭇머뭇 왔다가
은은하게 스며들기를.....



감 사 합 니 다 .



| 저자초청 강연회 - 사례자료 |

“공동체는 탁월한 개인보다 지혜롭다”

- 강위원 저자(여민동락공동체 살림꾼)

공동체는 탁월한 개인보다 지혜롭다.

- 공동체 운동의 소소한 사례들 -

강 위 원

광주 주먹밥은행 은행장

여민동락공동체 살림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상임이사

1. 머리말

운치 있는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그런데 자못 떨린다. 아직 많이 거칠고 부족하다. 겸손이 아니다. ‘삶’과 ‘공동체’에 대해 누군가에게 웅숭깊은 말씀을 나눌 만큼 영글지 않은 탓이다. 공동체와 관련한 이론적 배경이나 현황에 문외한인이다. 성현의 말씀에, 몸으로 살아낸 얘기 외에는 어디 가서 입으로만 수다 떠는 일을 절대 금하라 했거늘, 제가 이를 익히 알면서도 다시 후회할 바를 만들고 있지 않나 싶다. 그만큼 강의라는 이름으로 뭔가 고백하는 일처럼 무서운 일도 없다. 결국 특별한 얘기를 그럴싸하게 풀어내는 지적 호기보다는, 제가 사는 삶의 방식과, 함께 하고 있는 농촌공동체인 ‘여민동락’ 그리고 5년 동안 관장을 했던 광주의 ‘더불어樂’, 최근 설립한 광주 주먹밥은행 등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2. 광주다움을 위한 공동체 생태계 실험 -광주 주먹밥은행

1) 광주 공동체정신의 상징 ‘주먹밥’

광주주먹밥은행은 80년 오월 광주의 공동체정신을 상징하는 주먹밥에서 모티프를 얻은 이름이다. 소외된 이웃들이 의지할 수 있는 주먹밥 공동체를 구축한다는 의미로, 이웃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십시일반 기금을 모으고 필요한 이들에게 빌려주는 ‘마을 은행, 이웃 대출’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주먹밥은행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은행이다. 주먹밥은행은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이 전담인력을 파견하여,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비영리단체다.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방법은 마땅치 않고, 아쉬운 소리하기에는 자존심 상하는 이웃들을 위해 필요한 자존 은행이다.

(※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 국가와 지자체의 재원이 아닌 광산구 주민들이 십시일반 기본재산을 마련해서 설립한 민간 재단이다. 전체 회원 4600명에 이르고, 연간 민간 기금 20억 원 규모로 광산구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공동체복지의 엔진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공동체복지 모델이 되고 있고, 기존 행정과 제도로 실행하지 못하는 다양한 공동체 실험을 이어가고 있다. 단순히 가난한 이들만을 돕는 복지재단이 아니라, 주민력 자치력 복지력을 키우기 위한 경계 없는 나눔을 통해 공동체 강화의 지원군이 되고 있다.)

2) 최대한도 30만원의 ‘3무 착한신용대출’

주먹밥은행은 금액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겪는 금전 문제와 경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대 3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이용자는 이 대출금을 1년 이내로 상환하게 된다. 대출 신청이 들어오면 주먹밥은행은 기초심사를 통해 신청인의 대출금 상환 계획과 상환 의지를 확인한 후 대출금을 지급한다. 이자도 담보도 보증도 요구하지 않는 말 그대로 ‘3무 착한신용대출’이다.

3) 금융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주먹밥은행은 대출금의 상환을 강제하지 않는다. 오직 사람에 대한 믿음으로 유지되는 믿음 은행이다. 때문에 대출금 상환과 예치금 보호를 장담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부실의 위험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기본적으로는 대출금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는 공동체가 되어 예치 이웃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주먹밥은행은 광산구금융복지상담센터와 협업으로 대출을 이용하는 모든 이웃들이 재무상담과 금융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행정과 협력하여 복지연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투게더광산의 복지망도 활용한다. 명실상부 공동체 생태계 강화와 금융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 갈 것이다.

4) 마을이 은행, 이웃이 대출

예치 이웃들에게는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게 된다. 이자는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에 재 기부되어 다시 주먹밥은행에 지정 기부되는 선순환 구조를 갖는다. 주먹밥은행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웃이 이웃을 살피고 돌보는 ‘마을 은행, 이웃 대출’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많은 이들의 기대와 응원 속에 시작된 주먹밥은행. 이제는 이웃들의 경제적 고통을 함께 분담하는 공동체로, 금융복지의 새로운 모델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3. ‘더불어 樂’ 복지관을 공동체의 마당으로

1) 복지, 담장을 넘어 마을로

광주 광산구 노인복지관 더불어樂은 도시공동체의 한 사례로 특별한 경우다. 이용자 중심의 회원제 복지관 건물을 마을 중심의 공동체 마당으로 확장한 보기 드문 유형이기 때문이다. 복지관의 미션은 바로 ‘사람중심 마을거점 공동체복지’다. ‘마을에서 어르신 한 분을 잃는 것은 큰 도서관 하나를 잃는 것과 같다’는 표어를 화두로 삼고 있다. 어르신들을 단순히 복지재정의 소비자 혹은 수혜자로 ‘취급’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사회의 중심이자 공동체의 당당한 주체로 ‘예우’할 것인지를 여부, 그것을 복지관의 철학과 관점을 바로 세우는 기준으로 삼는다. 어르신들이 지닌 경력과 자산, 재능과 지혜를 지역사회를 위해 두루 쓰일 수 있도록 거들고 돕는 일, 그리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단체와 기관, 마을 모임들이 어르신들의 경제적, 사회적 안전망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는 일을 복지의 근본에 둔다.

2) 복지, 소유에서 공유로

나아가 복지관 담장을 허물고, 복지관이 지역거점 다기능 복지의 역할을 해 갈 수 있도록 복지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을 중요한 사명으로 여긴다. 낮에는 노인복지, 밤에는 주민들이 이뤄가는 마을복지, 주말에는 청소년들이 주인이 되는 청소년학교를 통해, 그야말로 온 마을이 복지관을 거점으로 사람과 사람, 마을과 마을이 만나는 공동체 복지의 광장을 만들고 있다. 땅 사고 건물 짓는 토건복지 대신 기존 건물의 이용공간을 확장하여, 그 비용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사람중심 복지가 필요하다는 뜻을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다. 이른바 ‘밤에도 열린 복지관’, ‘주말에도 열린 복지관’은 특정 대상의 소유에서 마을 전체의 공유로 복지관을 개방한 사례다. 담장을 낮추고 운영인력만 갖춰지면 복지관 하나가 온 마을 주민들이 사립문 열고 접시 돌리며 마을 공동체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커뮤니티 플랫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3) 어르신들의 자주적 결사

그래서다. 복지관 1층 휴게실을 개조해서 마을도서관과 마을찻집을 만들고, 이를 지역에 나눴다. 국가의 보조금과 인건비 지원 없이, 어르신들 스스로 십시일반 나눔과 협동의 힘으로 만든 작품이다. 379명의 어르신들이 기금출연으로 자주적이고 협동적인 결사를 하셨다. 시공설계와 감독 또한 건축 일을 하셨던 어르신 한 분의 재능기부로 이뤄질 만큼 예상롭지 않은 모색이었다. 밤과 주말에도 문을 열고 지역주민 누구라도 이용하는 마을도서관과 마을찻집, 이렇게 문을 연 마을도서관에서는 어르신 글짓기 교실, 작가초청강좌, 어르신들과 초중고 학부모 독서회와의 만남, 공정무역토크쇼, 어르신과 지역주민 작품 전시회, 작은 음악회, 휴먼 다큐멘터리 상영회 등을 진행하고 있다. 조합 혹은 기업은 아니지만 철저하게 협동조합의 원칙과 정신으로 어르신들이

만들어 낸 쾌거다.

4) 광주전남 협동조합 1호

어르신들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는다. 국가가 마련해 주는 노인일자리에만 의존하지 않고, 어르신들 스스로 자립형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공헌활동도 해보라며 ‘더불어 樂’이라는 협동조합을 설립했다. 당연히 적잖은 출자금도 모았다. 그래서 두부공장도 짓고 팔죽가게도 열었다. 이미 협동조합의 순례지가 되고 있고 광주전남 협동조합 1호로 지역협동조합의 선구자로 정착했다. 머지않아 낮 시간에만 운영하는 경로식당을 밤에 개방하여 협동조합으로 도농직거래 밥집을 운영할 계획까지 갖고 있다. 이렇듯 공공건물을 특정 대상의 ‘소유’에서 마을의 ‘공유’로 바뀌가는 관점의 변화가 무한한 상상력을 키워내고 있고 사람중심 마을거점 공동체복지의 공장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4. 여민동락공동체의 일상

농촌의 현실은 암울하다. 수입 개방의 파고와 해마다 널뛰기하는 농·축산물 가격 등은 농민들을 절망케 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공동체’ 운동이 태동하기도 했다. 상당수가 실패로 돌아갔다. 지역민과 호흡하지 못하는 공동체의 폐쇄성이 큰 원인이었다. 전남 영광군 묘량면의 ‘여민동락(與民同樂)공동체’가 지역사회와 주민 중심의 자주, 자립, 자치의 마을공동체를 목표로 삼은 이유다.

여민동락공동체는 작고 가난한 비영리단체다. 소박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동행중이다. 폐교 위기의 시골학교를 살려 가려 애쓰면서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등 농촌의 교육과 문화, 복지와 경제의 부흥을 위해 힘쓰는 일터공동체다. 특히 지역주민과 함께 행복을 나누는 ‘복지 너머의 복지’를 꿈꾼다. 농민들과 더불어 농사를 짓고 밥을 먹으며 작은 시골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농촌의 삶터를 새롭게 살리는 지역일체형 공동체를 지향한다.

1) 할매손 송편공장부터 동락점빵까지

2009년 ‘여민동락 할매손 모싯잎 송편공장’을 설립했다. 마을 어르신 13분이 참여해 떡을 만들었고, 40여분은 작목반을 꾸려 모싯잎을 생산했다. 지역이 쌀 중심이다 보니 일자리가 거의 없었다. 모싯잎 송편을 지역특산품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모싯잎 재배를 고민했다. 지천에 모싯잎이 널려 있었고, 재배도 비교적 쉬웠다. 농협에서 대출 받아 모싯잎 송편 공장을 세웠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점차 판로가 확대됐다.

처음에는 여민동락 후원자를 대상으로 판매했지만 쇼핑몰을 만들고 지역축제에 참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불특정 고객을 확보했다. 현재 3억 원 규모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무엇보다 몸이 허락하는 만큼의 노동으로 어르신들의 사회적관계가 복원됐고, 삶이 풍성해졌다.

마을가게도 있다. 사람과 사랑을 잇는 마을가게 ‘동락점빵’이다. 묘량면은 낙후돼 있어 구멍가게도 없었다. 구멍가게는 주민들의 염원이었다. 먼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 ‘구매난민’을 위해 탑차를 이용해 이동식으로 운영키로 했다. 사회서비스형 유통사업단을 만든 셈이다. 다양한 생필품을 공급하는데 지역주민들이 구매하고 수익은 다시 지역에 환원하는 구조다. 2014년 동락점빵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했다. 전남지역 1호 사회적협동조합이다. 지역주민들이 이사진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경제든 복지든 지역주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여민동락의 철학이 담겨있다. 동락점빵 이동장터는 여민동락공동체 마을살이의 꽃이다. 1톤 트럭에 생필품을 싣고 차량방송을 하며 마을과 들녘을 돌아다닌다. 매주 장터에서 만난 주민들이 300여 분 가량이다. 그만큼 사연도 많고 눈물도 깊다.

한 어르신은 소화가 안 된다며 '사이다(페트병)' 한 병을 달라신다. 집까지 가져다 드리며 "자꾸 소화가 안 되시면, 사이다 대신 '약'을 드셔야 한다."라고 당부까지 하고 나온다. 일주일 뒤 다시 만난 어르신, 다짜고짜 집으로 끌고 가신다. "아니 당최 안 된 당께. 한번 봐주소잉." 그때까지도 텔레비전 리모컨이 안 된다는가, 가전 도구가 안 되나 보다 했다. 그런데 아뿔사! 어르신께서 내민 것은 지난주에 사셨던, 그 사이다였다. 사이다 뚜껑을 못 열어서 아직까지 못 드셨다는 말씀. 며칠 전에는 망고주스를 사셨다. 이번에는 바로 뚜껑을 뚫 다음 다시 잠가 드렸다. "어르신! 망고주스 제가 따냈으니까, 이렇게 흔들어서 따라 드세요~" 이렇게 산다. 동락점빵은 단순한 이동장터가 아니다. 협동조합 경제사업처럼 보이지만, 집집마다 주민들의 살림을 살피고 안부를 확인하는 농촌복지의 과정이기도 하다. 어르신들의 마지막 삶과 동행하며 우애의 역사를 써나가고 있다. 평생을 농부로 살다가 이제 가장 작고 힘없고 가난한 생의 끝에 와 있는 분들이다. 충만한 삶을 기대할 순 없다 해도, 생의 끝 자락에 외롭지 않게 기댈 어깨 정도는 옆에 있어야 마땅하다.

2) 협동조합과 농민 그리고 공동방아

올 해 수매가 폭락에 대한 대책회의 때 있었던 일이다. “부모가 물려주신 땅으로는 네 명 식구 입에 풀칠도 하기 어려웠어라우. 농사량을 늘려야 살 것 같아서 땅 사고 임대하고 인자 논농사 120마지기요. 사람이 없으께 기계 사고 창고 짓고 하다가 도시에서 번 돈 다 바닥났지라우. 7년 지나 남은 건 빚 뿐인디 쌀값마저 이라고 똥 값인께 앞이 캄캄하당께요.” 농사만큼 보람된 일이 없다며 30년 가까운 도시생활을 접고 귀향한 지 7년차인 이장님의 하소연이다. 결국 도시녀인 아내가 농사 외 다른 일로 생계를 돕는단다. 더불어 행복한 농촌이 오기는 올까. 농촌에서 농사로 밥걱정 않고

사는 게 가능하기나 할까. 그래서다. 2015년부터 사회적협동조합 ‘더불어 삶’을 만들고 본격적으로 농민 조합원들이 주인이 되어 쌀 수매부터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공동방아’라는 이름으로 마을 농가의 쌀을 도시의 회원들에게 연결하고 있다. 쌀 주문을 받아 매월 적당한 날에 방아를 찧어서 택배로 공급하는 일이다. 공공기관 몇 곳이 쌀 구입에 참여하면서 공동방아 수량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나락 매입에 대한 협의와 결정은 ‘동락점빵’ 사회적협동조합 이사님들의 몫이다. 대부분 이장님들의 이사로 계셔서 가격결정이나 품질보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생태주의니 자연주의 농법이니, 소농과 고령농도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농촌이니 하면서 안간힘을 써왔지만, 좋은 말만큼 현실은 호락호락하질 않다. 당장 농촌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한 농민들의 전투가 가혹하리만치 처절한 탓이다.

협동조합 회의 도중 이장님 휴대전화가 울린다. 인근 마을에 사시는 고령농이신데 쌀값 걱정, 판로 걱정엔 한탄을 하시는 모양이다. “어르신 걱정하지마쇼이잉. 내가 지금 어르신께 3,000원 더 쳐서 내줄라고 이야기중인께잉.” “오매 오매 고맙네야. 뭘 일이당가. 그럼 자네만 믿네잉.” 하고 끊으신다. 대화가 짹하다 짹하다.

3) 비닐하우스 마을보따리전

‘장암골 마을보따리전’은 추수 끝나고 김장철 준비하는 딱 그 사이 열린다. 절기로 보면 입동(立冬)과 소설(小雪)사이다. 벌써 몇 해째 이어지고 있다. 서양식으로 치면 추수감사절이라 해야겠다. “형편이 그렇게 간단히 준비하드라고잉.” 처음엔 그러셨다. 허나 마을마다 분주하다. 간단히 준비해서 조촐하게 잔치를 열자는 소박함(?)은 늘 온데간데 없다. 모태다 보면 그때마다 판이 커지고 만다. 새로 김치를 담가 떡국 한 그릇 나눠먹자 했지만, 김치 담그는 일부터 예사롭지 않다.

며칠 전부터 부녀회장님 차 트렁크에 이 집 저 집 배추가 모인다. 흰 무도 보이고 빨간 무도 보인다. 누가 봐도 한집 채소가 아니다. 이장님은 감도 한 포대 내놓으셨다. 재미난다. 하루 전 계란지단 부치고 가늘게 썰어서 담아 놔다. 파도 미리 송송 썰어 놓으시고, 김 가루도 빼놓지 않고. 소고기도 삶아서 얇게 찢어 놔다. 떡국 고명용으로 모두 손색없다. 향꾸네 모으려면 마을회관으로는 턱도 없다. 그간 품앗이학교에서 그린 그림도 전시하고 광주에서 초청한 공연팀의 전통춤과 판소리 공연도 봐야 한다. 밖은 추워서 엄두도 못 낸다. 그렇다고 그럴싸한 실내공간도 없다. 그래서 택한 게 비닐하우스다. 안성맞춤이다. 탁월했다. 늘 보던 곳이라 만만하고, 난방기 없어도 따뜻하다. 비닐하우스는 농부들에게 안방만큼이나 소중한 또 하나의 집이다. 다용도 전천후 공간 말이다. 마을보따리 문화난장 행사로 곡식을 말리고 보관하는 농사전용 공간에서, 이제 미술과 음악이 공존하는 공연장으로까지 탈바꿈했다. 손을 뻗어보니 춤사위를 방해하지 않을 만큼 공간도 제격이다. 품앗이학교 미술시간에 그린 그림도 걸고, 뽀뽀뽀 쓴 보따리전 축하 글도 걸었다. 한글실력이 일취월장한 어르신들의 시한 편도 떡하니 전시했다. 여기저기 화기에애하다. “아따 월암댁 참 잘 그렸소잉.”

“우리 선상이 잘 갈쳐서 그데요.” 하며 대거리도 주고받는다. 배우와 관객이 따로 없이 마당극으로 이어진 판소리 공연은 비닐하우스를 최고의 절정으로 뜨겁게 달구고 만다. 누가 봐도 재미난 전시관이자 미소 절로 나는 공연장이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이렇게 산다. 농촌 식으로 말이다. 화려하지 않아도 좋다. 세련되지 않아도 좋다. 그 안에 꾸밈없는 삶이 그대로 있으면 그만 아닌가.

4) 마을학교

여민동락공동체는 속칭 ‘복지재벌(?)’이다. 마을 곳곳마다 문어발처럼 마을복지센터를 두고 있다. 23개나 되는 전남 영광군 묘량면 마을회관이 ‘여민동락 출장소’인 덕분이다. 마을마다 있는 마을회관을 마을복지문화센터로 만들어 마을공동체 안에서 주민들 스스로 우애와 협동의 복지를 이루도록 신명을 돋우는 일, 그게 바로 지역공동체가 여민동락에게 내린 마을복지 심부름이다. 그래서 시작한 게 일명 ‘장암산 마을학교’다. 여민동락 정면에 482m의 겸손한 높이로 병풍처럼 펼쳐진 산, 정상 일대가 평평해서 앞마당처럼 다정하고, 산세가 마치 물위를 떠가는 조각배처럼 생겨 주변의 다른 산들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산, 그 산이 바로 마을의 정신과 기운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장암산(場岩山)’이다.

농한기 때 농촌마을은 마을회관이 시끌벅적하다. 주민들이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한동안 병원에 다니시느라 못 나오시던 동네 어르신들까지 모두 모이니 마을 잔치가 따로 없다. 건강체크와 건강체조를 한 뒤에는 민요교실까지 이어진다. 진도 아리랑과 뱃노래를 배우고, 동네 누구덕 자녀 이야기가 줄줄 이어진다. 특별한 차림이 아니라도, 김자반, 동치미, 그리고 김치 엮어서 함께 준비한 점심밥상도 더불어 함께 하니, 더 이상 즐거울 수 없다.

궁극적 목표는 따로 있다. 이런 공감과 연대의 과정을 거쳐 장암산 마을학교의 꿈은 단연 ‘마을공동체’의 복원과 완성이다. 이른바 마을회관을 싹틔줄 거점으로 삼아 마을별 대동회를 활성화 해 가는 것이다. 과거 촌락사회의 운영을 논의하고 의결하는 자치적인 집회조직인 대동회다. 과거 대동회에서는 마을의 임원선출, 예산과 결산보고, 공유재산의 관리대책, 규칙제정, 공부(公賦)의 대책, 임원의 보수결정, 수리시설과 농로 등 마을 공동의 개발대책 등을 비롯한 마을생활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공동이익과 공동행위, 사회적 협동에 관한 문제가 토의, 결정되었다. 의사 진행은 촌락의 공식적 지도자인 이장이 주관하지만, 중요한 일은 유지로 불리는 비공식적인 지도자들과 미리 상의해서 대동회의 공론에 부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대동회를 바탕으로 대동경제, 요새 표현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의 새로운 농촌경제의 모델을 발굴 발전시켜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을학교는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이러한 상호부조정신을 강조하여 사회적 협동을 강화하는 조력자의 역할이자 농촌마을의 희망을 설계하는 공동체의 학습장이다. 돈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물질적 지원 못지않게 공동체적 인간관계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중시한다. 장암산 마을

학교는 여민동락공동체가 제시하는 공동체 중심, 마을복지의 아주 작은 시도다.

5) 행복한 퇴임식

송편 만드는 어르신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분이 80세다. 73세부터 시작했으니 횃수로 8년차다. 가장 젊은 분은 69세, 대부분이 70대 중반이거나 그 이상이다. 농사는 이제 거의 짓지 않는다. 논농사야 동네 젊은 청년이 기계로 다 해주니, 쌀 사먹는다고 생각하고 기계값을 주신다. 그런데 어르신들과 하는 일이 늘 그렇다. 시간이 지날수록 숙련 기능이 느는 게 아니라, 병원 갈 일이 늘다. 자연스럽게 후임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다들 아직은 정정하다고 하시지만, 본인들이 느끼기에도 생산량이 많이 떨어졌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다른 떡집에선 하루 만에 끝낼 일을 우리는 이틀 삼일 걸린다. 만드는 속도가 느려진 거다. 하루에 얼마나 생산하느냐가 제조단가를 결정짓는데, 굳이 이야기하자면 떡 공장 경영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얘기다. “우리는 할 만큼 했제잉. 벌써 7년이 넘었는디. 인자는 좀 더 젊은 것들(?)로 바꿀 때가 되었어. 빠릿빠릿한 젊은 새댁(?) 들로 말이여.” 그래봐야 60대다. 후임자를 찾는 일은 어르신들이 하시기로 했다. 그런데 후임자 구성이 오래 걸릴 것 같다. 아직은 본인들 만한 사람들이 없단다. 웃어야할지 울어야할지, 하하.

10년차 세월이 가니 동락원 농장에서 일하시는 어르신들 중에도 퇴임(?)하실 분들이 여럿이다. 다들 여민동락 일자리가 생길 때부터 함께 했던 어르신들이다. 평생 농사만 짓다 각종 만성질환을 안고 사시는 어르신들. 이제 어쩔 수 없이 세대교체가 필요해졌다. “월급 받아서 손주헌티 봉투를 줬당께. 지난 번 설 때도 세뱃돈을 10만원이나 담았어라우. 어른 노릇 한 게 좋습디다.” 그 말씀들이 떠나질 않는다. 달인들을 위한 ‘행복한 퇴임식’이란 뭘까, 그게 고민이다.

6) 여민동락공동체의 헌법

여민동락공동체는 처음부터 자립과 자치의 원칙과 취지에 맞게 설립됐고, 지금도 그 헌법대로 활동하고 있다. 첫째, 노동과 생산을 통하지 않은 모든 외부의 기부와 후원은 반드시 그 십분의 일을 쪼개, 더 가난하고 후미진 지역과 단체와 시설에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둘째, 국가의 보조금과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되, 다만 국가의 보조금과 인건비는 재정적 독립과 경제적 자립을 완벽하게 이룬 뒤에,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규모의 감당 가능한 자금만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셋째, 아이들을 도시로 유학 보내지 않는다. 마을공동체 활동의 기본은 지역에 ‘사는’ 것이다. 지역 사회의 작은 시골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주민들과 함께 교육과 문화를 살려가야 온전히 주민들과 어울릴 수 있다. 넷째, 농촌주민들과 함께 농사를 짓고 밥을 먹으며 농부로 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을활동가 혹은 지역운동가라 자칭하면서 주민들 속에서 ‘헌신’만 하는 게 아니라, 이웃으로 함께 살며 주민들의 살림모양을 닮아가고 농민들에게 여쭙고 의논하고 부탁하면서 온전히 마을구성원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7) 신뢰와 학습이 사회적경제의 관건

이처럼 여민동락은 농촌의 경제 복지 교육 문화의 융복합적 접근과 사회적경제의 원칙에 의거해 마을공동체를 살려가고 있다. 여민동락 설립과정에서도 돈 있는 사람은 돈을, 관계가 풍부한 사람은 관계를, 행정능력이 있는 사람은 행정능력을 출자하면서 시작했다. 여민동락공동체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구성원간의 절대적인 ‘신뢰’이자 끊임없는 ‘학습’이다. 여러 난관도 있고, 일탈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관계의 축적을 통한 신뢰의 확인없이 공동체는 성공할 수 없다. 지속가능한 신뢰의 확장은 끊임없는 학습에 기반하지 않고는 오래갈 수 없다. 여민동락공동체는 ‘월요학당’을 통해 학습하고 성찰하는 걸 게을리 하지 않는다. 공동체는 늘 갈등과 반목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평범한 살림살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조절 통제하고 신뢰로 승화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학습과 성찰의 시스템을 정교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8) 작고 소박하게 실천하는 협동조합

여민동락공동체는 지금 ‘동락점빵’, ‘할매손 송편’, ‘행복일자리 영농협동조합’을 운영한다. ‘노인주간보호센터’나 ‘학교살리기’ 같은 복지와 교육활동 외에도 다양한 협동조합 유형의 사회적경제를 실천해 간다. 협동조합은 한마디로 동업이다. 동업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규모가 크고 사람이 늘어갈수록 그 실패의 가능성은 그만큼 더 커진다. 그래서다. 여민동락이 만드는 협동조합은 지극히 가난한 협동조합이다. 작고 소박하게, 마을에서 사는 주민들이 그 마을에 거점을 두고 만들어 가는 구조다. 사람중심 마을중심이라고 해야겠다. 큰 돈을 벌 수는 없다. 그러나 큰 위험 없이 큰 행복을 추구하는 걸 목표로 한다. 행여 수익이 생기면 마을기금 혹은 지역 사회 공유자금으로 축적한다. 뜻이 좋아야 그 과정이나 결과에 따라 분열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당장의 성과보다 오래도록 길게 궁리하고 신뢰를 축적하는 관계망을 우선시 한다. 그래야 온전히 사회적경제 혹은 협동조합이 ‘좋은 사람들과 좋은 뜻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자부심으로 충만하게 된다. 그러면 무너지지 않는 기업이 된다. ‘사업’이 아니라 ‘살림’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좋은 뜻만 있고 ‘경영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 영리기업 이상의 수고와 노동이 필요하고, 부단히 제도와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전문가들과 상의하는 부지런함을 보여야 한다. 워크숍이든 강연회든 아니면 관련 저서와 자료, 논문들을 접하고, 선진지 견학과 선구자들과 자주 어울려야 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공부와 경험과 신뢰, 나아가 마을 속에서의 관계가 깊어지고 쌓이다보면, 새로운 상상력을 통해 또 다른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선순환이 가능해진다. 그것이 바로 협동의 힘이고 협동조합의 긍정성이라고 생각한다.

5. 지방정부는 무엇을 할 것인가.

첫째, 공동체 생태계에 대한 ‘관점과 인식’의 제고다. 현장주체는 분명 민간이다. 민간의 결사로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율적인 운동이 중요하다. 그래서 민간의 참여로 이뤄가는 공공성의 확장 관점에서 부족한 부분을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이 옳다. 민간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의 바탕이 없이 지방정부의 정책과 제도에 의한 공동체 활성화가 불가능한 이유이기도 하다. 오히려 지금까지 일부 지방정부가 실적과 과속에 의해 공동체 생태계를 교란시킨 측면도 있어온 바, 민간을 행정행위의 하위체제로 인식하는 편파적 관점을 개선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 이는 지방정부가 자원을 가지고 있고, 그 자원을 배분하고 인력배치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늘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지방정부의 공동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민간의 공익적 사회적경제 활동을 거들어주고, 관행에 의한 저해요인을 제거해 주는 일이 기본이어야 한다.

둘째, 작고 강한 모범사례를 만들어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일이 중요하다. 기초지자체는 현장형 모범사례를 만들어 내고, 이를 광역지자체가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점진적 단계를 거치는 게 맞다. 광주 광산구는 복지관 어르신들이 중심이 된 노인협동조합이 있고, 청소 환경노동자들이 주축이 된 청소협동조합이 있는데, 이를 모델로 전국적 영향력을 갖는 튼실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마을 속에서 협동조합과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널리 확산하는 기회를 만들기도 했다.

셋째, 민관협력과 학습조직의 구축이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 했듯이, 사회적경제의 수준은 그 부서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다. 공무원들이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필요에 대한 신념이 있고, 그 분야에 탁월한 전문적 역량을 갖춰야만 정책과 제도의 지원에 있어 다양한 민원대응력이 생길 수 있다는 건 상식에 해당한다.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 전문 작은도서관을 만들고, 사회적경제 행정동아리도 만들어서 두루 탐색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민간의 학습조직도 마찬가지다. 학습없이 진화없고 기록없이 축적없다. 행정은 민간의 학습조직을 지원하고, 민관이 함께 공부해 가면서 지역특성과 환경을 분석하고, 장차 중기 지역단위 사회적경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6. 우리의 이상은 마을공화국

마하트마 간디는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에서 “인도를 살리기 위해선 70만 개의 마을공화국이 필요하다.” 라고 했다. 마을을 살려야 나라가 산다는 수준이 아니라, 마을이 한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현장이라는 뜻이다. 나눔과 배려를 통해 복지와 마을이 만나고 공동체 복지와 공동체 문화, 나아가 공동체 경제와 교육이 이어지는 ‘마을공화국’의 완성, 그것은 지금까지 제대로 시도해 본 적이 없는 복지와 자치의 새로운 접근이자 집단적 지향이다. 마을 안에서 자립과 자치 그리고 직접민주주의의 싹을 틔우는 마을공화국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공동체복지’의 미래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보다는 물질이 최상의 가치로 대접받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줄고,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우애와 협동의 여유는 찾을 수 없는 위험사회에 처해 있다. 노동은 더욱 불안정해졌고, 생태환경의 위기는 보다 심화됐으며, 살림의 격차는 극도로 벌어졌다. 오직 '잘 살아보세'를 외치며 맹렬하게 달리면서 개발과 성장에 몰두하는 동안 여럿이 함께 잘 사는 방법, 공동체 정신은 점점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얘기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지금 다들 행복한가? 우리 이웃들은 안녕한가? 우리 사회는 건강한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많은 이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 오래도록 궁리하고 실천해 오고 있다. 사람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서게 하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공생의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지혜를 모으고 있다. 남녀노소 빈부강약이 제 마당 제 삶터에서 누구라도 차별당하지 않고 서로 돕고 나누는 마을과 일터를 만드는 일로 어울리고 있다.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철학으로 보육과 교육을 바라보고, '마을에서 어르신 한 명을 잃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없어지는 것과 같다'는 소신으로 복지를 접근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단순히 골목길만 고치는 게 아니라 쓰레기, 범죄, 거짓은 사라지고, 사라진 마을잔치와 웃음과 놀이는 살려가는 변화된 마을과 지역, 그리고 그 바탕을 튼튼히 하는 방향에서 문화와 환경에 관심을 두는 추세다. 그 중심에 주민을 세우고 마을리더를 키워가며 풀뿌리 자치의 자연력과 사회적경제의 생태계를 조성하여 사람, 삶, 살림의 근본을 제대로 뿌리내리는 일을 우선시하는 지역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는 점도 희망적이다. 이제 다양한 범주에서 활동해 온 개별들의 실천력을 모아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사회적 확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협동과 연대의 살림살이 즉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주민조직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 사람이 사람답고 사회가 사회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데 보다 광범위한 힘을 모아야 가능한 일이다.

우선 민과 관이 협력하여 사람과 사회의 변화를 일궈갈 태세를 갖추는 일부터 시작

해야 한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선구적인 모범을 착실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바람직하고 다행스럽다. 한 축으로는 협동조합을 통해 우리가 사는 마을의 자연과 인적, 문화적 자원들을 조사하고 체계화해 이를 바탕으로 마을을 위해 일할 사람을 키우고 도와야 한다.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삶터와 일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를 중심에 둔 공익적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 한 축으로는 마을 안팎에서 주민과 주민을 잇고, 시민사회단체, 기업, 자치단체를 연결하면서 여러 생각과 자원들이 어울릴 수 있는 나눔과 연대의 공동체, 나아가 자립과 협동의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주민들 속에 본래부터 존재하던 '더 깊은 선의 뿌리'를 낙관하고, 좋은 사람과 좋은 체제의 선순환을 이뤄가려는 모양새를 갖추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행복해지고 싶다. 우리는 더불어 살고 싶다. 우리에게겐 옹기종기 마을을 이뤄온 동네가 너나없이 잔치를 열고 마음을 여는 소박한 꿈이 있다. 자치를 통해 복지를 완성하고 협동조합과 마을민주주의를 통해 사람의 사람다움을 키워가고 싶다. 가족·세대 간에 할 얘기가 많아지고, 이웃의 삶이 궁금하고, 우리 아이들을 같이 키우는 넉넉한 사람의 숲, 마을의 숲을 이루고 싶다. 그 마을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다. 모이고 수다 떨고 꿈을 꾸는 사람들, 세상을 바꾸기 위해 '바짝 옆드려' 바닥에서 마을을 살려가고 있는 이들 안에 이미 그 꿈은 현실로 다가와 있다. 그것이 바로 '마을공화국'이다. 그래서 바로 '마을공화국'이다.

메 모 장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is no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메 모 장

[illegible]

메 모 장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is no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